

PANERAI
LABORATORIO DI IDEE



L U M I N O R D U E
L U N A

ITALIAN CREATIVITY & SWISS WATCHMAKING EXPERTISE

EXTEND YOUR INTERNATIONAL LIMITED WARRANTY
FOR UP TO 8 YEARS ON PANERAI.COM

갤러리아 EAST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에비뉴엘 본점 - 더현대 서울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판교점

THE CLASS

VOL.60 2023 WINTER

더클래스 표지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60
2023
WINTER



REVIEW

오늘 경험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Mercedes-EQ
The new EQE 350+

BRAND STORY

역사상 가장 강력한 S-Class
Mercedes-AMG S 63 E

ISSUE

자동차와 패션의 만남
메르세데스-벤츠 패션 위크



ISSN 2384-0552 7,000원

더클래스 효성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The Class Hyosung

Experience Future with
Premium Lifestyle Provider



더클래스 효성은
세계 최고의 명차로 인정받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이며 자동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라는 트렌드를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 여러분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딜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Showroom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 : 02-575-7500
분당 정자 전시장: 031-786-6000
송파 전시장 : 02-3434-4000
안양 평촌 전시장 : 031-689-8900
청주 전시장 : 043-299-9000
천안 전시장 : 041-620-7000
구리 전시장 : 031-579-0900
용인 수지 전시장 : 031-5183-9200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 031-8072-8900
동탄 전시장 : 031-880-02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02-3433-1999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 041-555-5070
Mercedes Café by The Class Hyosung :
031-8072-8902

Service Center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 02-2152-3333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 031-579-0970
하남 서비스센터 : 02-3433-1900
동탄 서비스센터 :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 041-620-7070



태양빛으로 무한히 구동되는 위치
슬라그래프

BEYOND THE EDGE

TAG HEUER AQUARACER

제품 및 AS 문의 _ www.tagheuer.com/ko 태그호이어 부티크 청담점 02-548-6020~1 롯데호텔 소공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WEST 천안점 대전점 진주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점 잠실점 인천터미널점 부산 서면점 월드타워점 동탄점 수원점 대전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 광복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점 본점 타임스퀘어점 의정부점 경기점 하남점 대전점 천안아산점 부산 센텀시티점 김해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판교점 중동점 충정점 대구점 울산점 AK플라자 분당점 수원점 대백프라자

CONTENTS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60 Edition
2023 WINTER



COVER

Mercedes-AMG에서 출시한
고성능 콤팩트 세단 C 63 S E
PERFORMANCE. Mercedes-AMG가
게임 체인저라 부를 만큼 혁신 기술을
아낌없이 갈아 넣은 야심작이다.

발행처

더클래스 효성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발행일

2023년 1월 26일

발행인

이철승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남 바 00105

www.theclasshyosung.com

기획·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 <THE CLASS>는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해 발행하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 <THE CLAS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THE CLASS>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RO

08 GEAR

Your Majesty

10 WATCH

Of The Man, By The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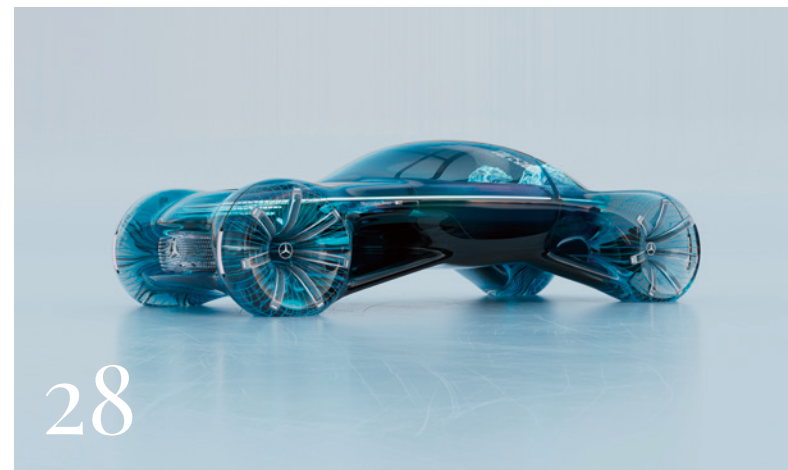
12 LIQUOR

World Whiskey

10



BRAND



28

14 BRAND STORY

역사상 가장 강력한 S-Class,
Mercedes-AMG S 63
E PERFORMANCE

18 ISSUE

자동차와 패션의 만남,
메르세데스-벤츠 패션 위크

22 SPECIAL

이제 캠핑도 전동화 시대,
Concept EQT Marco Polo

28 EXPERT

메타버스로 뛰어든
메르세데스-벤츠

32 MEET

메르세데스-벤츠 고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경험,
CitNOW

36 PREVIEW

55년 역사의 게임 체인저,
Mercedes-AMG C 63 S
E PERFORMANCE

38 CLASS NEW

여섯 가지 매력 포인트로 살펴본,
Mercedes-EQ
The new EQE 350+

40 REVIEW

오늘 경험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Mercedes-EQ
The new EQE 350+

CORNELIANI

SHINSEGAE Gangnam 6F Centum City 5F Daegu 5F GALLERIA East 4F

LOTTE Avenuel World Tower 4F Dongtan 2F

CONTENTS

BLING



44 TRAVEL WITH BENZ

마치 달항아리처럼

50 SCENE

목가적 분위기가 가득한 겨울 스포츠의 성지
스위스 그린델발트

56 PLACE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겨울 감성 숙소
Ryokan Stay



BEYOND



60 FASHION ADVICE

변치 않는 가치에서 풍기는 남자의 멋과
품격, Classic Suit

64 ART

유럽 최대 왕가의 품격을 만나다
〈함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68 CHECK-UP

겨울, 두피 노화의 시작
Anti-Aging for Follicle

72 NEWS

78 FOR READERS

The new EQE, This is for all senses

더클래스 효성에서 메르세데스-EQ 브랜드만의
럭셔리한 디자인과 수준 높은 편의성을 경험해 보세요.



시승 신청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Your Majesty

마제스티가 완성한 걸작, 황금빛 '프레스티지오 12'

직업상 수많은 골프 클럽과 마주하지만, 마제스티의 클럽 앞에선 괜스레 공손해 지기까지 한다. 그 생김새가 너무나 고귀하고도 품격 있어 보이기 때문일 터. 마제스티의 최신작 '프레스티지오 12'를 보며 다시 한번 느꼈다. 프레스티지오 12는 특유의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낸다. 특히 레드 그레데이션에 골드 IP 코팅으로 독보적 품격을 완성했다. 생긴 것만 고급스러운 건 아니다. 드라이버의 경우 우수한 비거리 성능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페이스 반발력을 높이는 디자인 덕분이다. 중심 타점 영역도 넓어졌는데, 공을 더 멀리 보낼 뿐 아니라 중심을 벗어난 타격에서도 비거리 손실이 적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반면 아이언은 고순도의 텅스텐 X16.5 소재로 컨트롤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하고 정확한 구질을 만들어낸다. 또한 빌트인 텅스텐 구조를 적용해 볼이 쉽게 들 뿐 아니라 미스 샷 경우에도 휘어짐을 억제한다. 녹슬기 쉬운 머레이징 스틸에 니켈과 크롬 IP 코팅을 적용해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는 등 내구성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Editor 이승률 Photo 박도현

문의 마제스티골프 1600-9970

No Break-in. No Limits.

더 이상 부츠를 길들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처음 신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ECCO부츠와 모든 탐험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ECCO HERITAGE BOOTS

Arjan van den Boom
maker of custom motorcycles

에코코리아 1833-2611 krecco.com

ecco®

Of The Man, By The Man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이라면, 지삭 'MT-G 라인'

지삭 시계를 한 번도 안 차본 남자가 있기는 할까? 군인에게는 든든한 톨 워치로, 뮤지션 등 인플루언서에게는 패션 아이콘으로, 나아가 사장님들에게는 필드 워치로 훌륭한 역할을 해온 시계 브랜드가 바로 지삭이다.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은 지삭은 '시계의 본질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중 'MT-G 라인'은 출장이 잦은 3040 비즈니스맨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남자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디자인은 캐주얼은 물론 슈트와 매치해도 잘 어울릴 만한 모양새다. 또한 메탈과 레진 소재로 제작해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출장 중 유용한 월드 타임 기능과 LED 라이트 등 실용적 기능도 눈에 띄는 부분. 이뿐 아니라 '모바일 링크' 기능을 탑재해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시간을 보정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호 범위 내 보정 신호 중 하나를 수신해 시간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도 갖췄다.

Editor 이승률 Photo 박도현 문의 지코스모 02-3785-0718



The World of Driving Performance

Mercedes-AMG

강력하고 독보적인 퍼포먼스 Mercedes-AMG
지금 바로 더클래스 효성에서 시승해보세요!

AMG



시승 신청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https://www.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https://www.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https://www.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World Whiskey

우리가 잘 모르던 위스키.



위스키 '열풍'이 거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위스키 수입액은 2억4,711만 달러(약 3,084억원)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발베니와 맥캘란 등 일부 인기 위스키를 구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등장했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모르던 위스키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 땅을 밟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흔히 세계 5대 위스키 생산국이라 일컫는 스코틀랜드(영국)와 미국,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만든 위스키도 종종 눈에 띈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등 국적도 다양하다. 그중 이스라엘 출신의 '밀크맨허니 에이펙스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사해에서 숙성 과정을 거쳤다. 덕분에 매우 복합적 풍미를 자랑하는데, 고수 씨앗과 화이트 페퍼 등 알싸한 맛이 입안을 채우다 짭조름한 바다 소금 맛으로 마무리된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다. 반면 대만 출신의 '카발란 솔리스트의 포트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몰트위스키'는 포트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해 자두와 블루베리, 블랙베리, 딸기 등 과일 향이 기분을 좋게 퍼진다. 피니시를 책임지는 건 달콤한 초콜릿 맛. 어찌나 달콤한지 자꾸만 입맛을 다실 정도다. 각종 위스키 관련 각종 주류 품평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Editor 이승률 Photo 박원태

문의 골든블루 080-788-1000 메타베브코리아 02-705-1304



더클래스 효성 온라인 스토어

완전히 새롭게, 가장 빠르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는 더클래스 효성 스토어



더클래스 효성 온라인 스토어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종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종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종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Mercedes-AMG S 63 E PERFORMANCE는
0-100km/h 가속 3.3초, 최고속도 290km/h의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S-Class Mercedes-AMG S 63 E PERFORMANCE

메르세데스-AMG가 S 63 E PERFORMANCE를 공개했다. V8 4.0L 트윈 터보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짝지어 시스템 최고출력 802마력을 내고, 슈퍼카 뽐내는 가속과 최고속도를 자랑한다. 뒷바퀴 조향과 에어 서스펜션, 완전 가변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춰 운전하는 재미도 빼어나다. 품위와 공간, 성능과 기술까지 모든 것을 거머쥔 S-Class의 끝판왕답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편집장)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S-Class는 메르세데스-AMG 역사의 이정표다. 50여 년 전, AMG는 최고급 세단도 얼마든지 매서운 경주차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1971년 선보인 Mercedes-Benz 300 SEL 6.8 AMG가 그 주역으로, V8 6.8L 250마력 엔진을 얹고 시속 220km를 달렸다. 벨기에 스파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클래스 1위, 종합 2위를 차지해 전설로 남았다.

편안함과 역동성의 두 얼굴

반세기가 흐른 지금 메르세데스-AMG가 또 다른 전설을 꿈꾼다. 주인공은 Mercedes-AMG S 63 E PERFORMANCE. “1971년 스파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S-Class의 활약 덕분에 AMG는 하 루아침에 유명해졌죠. 이제 E PERFORMANCE로 고성능 럭셔리 의 새 장을 열고자 합니다.” 메르세데스-AMG 이사회 필리프 쉬머(Philipp Schiemer) 의장의 말이다.

메르세데스-AMG가 강조한 S 63 E PERFORMANCE의 핵심은 동급 최고 성능, 탁월한 편안함, 조용한 전기 주행 등 세 가지다. 메르세데스-AMG의 기술 총책임자 요헨 헤르만(Jochen Hermann)은 “편안함과 역동성을 겸비하기 위해 에어 서스펜



뒤 범퍼 아래 드러난 AMG 머플러와
예리한 디퓨저가 예사롭지 않은 성능을 암시한다.



S 63은 더 이상 배기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고 성능을 상징하는 기호일 뿐이다.

AMG 다이내믹 셀렉트 주행 모드는 일렉트릭과 컴포트, 배터리 홀드, 스포츠, 스포츠+, 미끄러움(slippery), 인디비주얼 등 총 일곱 가지다. 회생제동은 0~3의 4단계 중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최대 3도의 뒷바퀴 조향을 지원해 저속에서는 민첩하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또 섬뜩한 성능을 품고도 최대 33km까지 완벽하게 전기차로 빙의할 수 있다.



선과 뒷바퀴 조향, 액티브 롤 스태빌라이저를 조합했다. AMG S-Class 중 최초”라고 강조했다. AMG 라이드 컨트롤은 에어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공기를 채우거나 빼서 승차감을 조율한다. 충격에 의한 수축과 이후 이완 과정의 댐핑을 2개의 연속 가변 제어 밸브가 동시에 각각 0.001초 단위로 조율한다. 그 결과 편안함과 역동성의 대척점을 이룬 두 성향의 이동 단계를 촘촘히 나눠 진행 과정이 매끈하도록 다듬었다. 운전자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 주행 모드를 통해 컴포트·스포츠·스포츠+의 세 가지 설정을 넘나들 수 있다. 또 AMG 라이드 컨트롤은 시속 120km 이상에서 차체를 10mm 알아서 낮춘다. 앞뒤 차축의 액티브 롤 스태빌라이저는 1초당 최대 500회 빈도로 코너에서 차체 기울임을 최소화한다. 한편 험로에서는 스태빌라이저의 좌우 연결을 끊어 승차감을 높인다.

앞 엔진, 뒤 전기모터의 조합

S 63 E PERFORMANCE 엔진은 V8 4.0L(3,982cc) 가솔린 직분사 바이(트윈) 터보다. 5,500~6,500rpm에서 최고출력 612마력,

2,500~4,500rpm에서 최대토크 91.8kg·m를 뽑는다. 2개의 터보차저는 V자로 벌린 엔진 좌우 실린더 사이에 있다. 그래서 터빈으로 압축한 흡기가 엔진 연소실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고, 그만큼 반응도 즉각적이다. 엔진은 S-Class 최초로 ‘액티브 마운트’ 위에 얹었다. 덕분에 상황에 따라 마운트를 단단하거나 부드럽게 바꿔 차체로 전달되는 엔진의 진동을 최소화했다. 변속기는 자동 9단(AMG 스피드 시프트 MCT 9G)으로, 유체의 흐름을 이용한 토크 컨버터 대신 습식 다판 클러치를 쓴다. 가장 빠른 가속을 보장하는 ‘레이스 스타트’ 기능도 제공한다. 여기에 전동화 지원군을 더했다. 전기모터는 뒤 차축의 끝단인 종감속 및 차동장치 바로 앞에 자리한다. 병렬 하이브리드 가운데 P3 방식이다.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너레이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400V 전기 시스템에 통합했다. 스타터와 교류발전기를 하나의 장치로 결합해 V8 엔진을 단순히 깨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18마력)을 발휘한다. S 63 E PERFORMANC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다. 구성은 C 63 S E PERFORMANCE와 같은데, 전기모터와 배터리 성능이 훨씬 높다. 엔진 힘을 뒤 차축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실내 구성은 평범한 S-Class와 다를 바 없다. 실은 이런 점이야말로 AMG의 매력이다.

샤프트 끝부분에는 전기 구동장치(EDU)가 있다. 190마력의 원통형 영구 자석 모터와 2단 변속기, 13.1kWh의 AMG 고성능 배터리로 구성했다.

802마력, 시속 290km의 최강 성능

휘발유와 전기의 시너지로 방점을 찍은 성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Mercedes-AMG S 63 E PERFORMANCE의 시스템 최고 출력은 802마력, 최대토크는 145.8kg·m. 변속기를 거쳐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듬은 파워는 완전 가변 사륜구동 시스템 ‘AMG PERFORMANCE 4MATIC’을 통해 네 바퀴로 나뉜다. 노면 상태와 주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구동력을 옮긴다. 전기모터가 변속기 뒤쪽에 자리한 ‘P3 하이브리드’는 엔진 토크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엔진 회전수 전 범위에 걸쳐 추가로 힘을 보탠다. 엔진을 품은 앞쪽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뒤쪽에 하중을 실어 무게 배분도 이상적이다. 뒷바퀴가 미끄러지면 엔진뿐 아니라 전기모터의 토크도 곧장 앞바퀴로 전달한다. 나아가 전기모터만으로도 사륜구동을 유지한다. Mercedes-AMG S 63 E PERFORMANCE의 성능은 플래그십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다. 0→시속 100km 가속을 3.3초에 마친다. AMG 드라이버 패키지를 옵션으로 고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90km까지 높일 수 있다. 뒤 차축 전기모터의 회전수는 시속 140km에서 1만3,500rpm으로 정점을 찍는데, 그러면 2단 변속으로 활력을 되찾아 토크를 뽑는다. AMG 다이내믹 셀렉트 주행 모드는 일렉트릭과 컴포트, 배터리 홀드, 스포츠, 스포츠+, 미끄러움(slippery), 인디비주얼 등 일곱 가지다. 회생제동은 0~3의 4단계 중 고를 수 있다. 최대 3도의 뒷바퀴 조향을 지원해 저속에서는 민첩하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또 섬뜩한 성능을 품고도 최대 33km까지 완벽하게 전기차로 빙의할 수 있다.



보닛 속 V8 4.0L 가솔린 바이 터보 직분사 엔진과 뒤 차축의 전기모터를 더해 시스템 출력 802마력을 내뿜는다.



뒷좌석은 안락함의 대명사 S-Class 그대로다.



뒷좌석 팔걸이의 태블릿으로 여러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자동차와 패션의 만남

메르세데스-벤츠 패션 위크

메르세데스-벤츠는 1995년 이후 패션업계를 사반세기 이상 후원해왔다. 지난해 9월, 메르세데스-벤츠는 베를린에서 치른 패션 위크를 통해 재활용 소재로 만든 캡슐 컬렉션 'ACC01' 그리고 미국 뮤지션과 협업한 'WILL.I.AMG' 컬렉션을 선보였다. 11월에는 e스포츠 팀 SK 게이밍, 영국 디자이너 사울 내시와 함께 한정판 캡슐 컬렉션도 소개했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악테(Acte)'™과 메르세데스-벤츠의 아트 디렉터가 손잡고 만든 캡슐 컬렉션 'ACC01'



'WILL.I.AMG'는 메르세데스-AMG가 브랜드 홍보 대사이자 미국 뮤지션 윌아이엄과 함께 진행한 '더 플립(The Flip)' 프로젝트가 낳은 결실이다.



유행을 미리 보는 패션 위크

패션과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정의하는 것. 따라서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인은 패션과 자동차 세계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메르세데스-벤츠 패션 위크' 창시자이자 메인 스폰서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치르는 80개 이상 패션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패션 위크는 패션 산업의 대표 행사로, 1년에 두 차례 일주일 이상 씩 바이어와 미디어에 새 컬렉션을 선보인다. 계절을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2~3월 F/W, 9~10월 S/S 컬렉션을 치른다. 연간 수백 회 개최하는 패션 위크는 아프리카 보츠와나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남태평양 피지 등 세계 각지에서 개최된다.

4대 패션 위크로는 뉴욕·런던·밀라노·파리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슈퍼 리치의 구매력에 힘입어 아랍 패션 위크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오늘날과 같은 패션 위크를 처음 개최한 곳은 뉴욕이다. 1943년 7월 19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파리가 아닌 뉴욕에서 막을 올린 것이다. 세계 복식의 수도, 파리는 정작 1973년에서야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995년 뉴욕 패션 위크의 메인 스폰서를 시작으로, 패션과 관련한 공식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어느덧 사반 세기를 훌쩍 넘겨 존재감도 상당하다. 그 결과 메르세데스-벤츠는 후원하는 패션 위크의 공식 이름을 당당히 꿰차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패션 위크 뒤에 뉴욕, 베를린, 마드리드, 아시아 등 개최 도시나 지역명을 붙이는 식이다.

베를린 쇼 수놓은 창의적 발상

2022년 9월 5일, '메르세데스-벤츠 크리에이터스 나이트(Mercedes-Benz Creators Night)'를 시작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패션 위크 베를린 봄/여름 2023' 막이 올랐다. 2007년에 시작한 베를린 패션 위크는 2011년부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치르고 있다. 전야제의 핵심은 패션과 자동차 디자인을 결합한 'ACC01'과 'WILLIAMS' 캡슐 컬렉션이었다.

시사 상식 사전에 따르면, 캡슐 컬렉션은 급변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품 종류를 줄여 작은 단위로 발표하는 컬렉션을 말한다. ACC01은 베를린에 자리한 의류 브랜드 '악테(Acte)™'와 메르세데스-벤츠 아트 디렉터가 손잡고 만든 캡슐 컬렉션이다. 티셔츠와 후디, 재킷, 코트, 가방 등 총 28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ACC01의 테마는 정밀성, 뛰어난 디자인, 기술적 완성도 및 지속 가능성이다. 제품으로서 자동차의 특징과 절묘하게 겹친다. 이들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역사에서 영감을 받아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한다. 또 회사가 보유한 재고 중 재활용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다. ACC01 컬렉션은 베를린에서 혁신적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할 예정이다.

'WILLIAMS'는 메르세데스-AMG가 브랜드 홍보 대사이자 미



국 뮤지션 윌리엄(will.i.am)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더 플립(The Flip)'이 낳은 결실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와 입을 세 꼭지별로 형상화한 '곰 목격자(BEAR WITNESS)' 아이콘을 넣은 야구 재킷, 후디 등 한정판 의류 컬렉션을 출품했다. 판매 수익은 빈곤층 학생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패션과 e스포츠, The new EQE의 협업

지난해 11월 30일, 메르세데스-벤츠는 SK 게이밍(Gaming)의 2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또 다른 한정판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 SK 게이밍은 1997년 독일 쾰른에서 창단한 e스포츠 전문 팀. '카운터 스트라이크', '리그 오브 레전드', 'FIFA', '퀘이크 Ⅲ' 등 PC 게임과 XBOX 360용 콘솔 게임 등 다양한 게임에 걸쳐 전문 게이머와 팀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컬렉션의 산파는 영국 패션 디자이너이자 안무가 사울 내시(Saul Nash). 그는 퍼포먼스 디자인을 전공하고 안무가로 활약하다 왕립 예술대학교(RCA)의 지원을 받아 컬렉션을 선보이며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그의 컬렉션은 신체 움직임에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결합한 형태뿐 아니라, 런웨이와 공연을 합친 구성으로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선정한 '올해의 디자이너(Queen Elisabeth II Award for British Design)'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사울 내시는 일상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구와 패셔너블한 스타일을

결합한 재킷과 긴소매 티셔츠로 한정판 캡슐 컬렉션을 구성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특징. 또 컬렉션을 공개하며 동시에 메르세데스-벤츠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는 댄서 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The new EQE가 등장한다. 안무는 사울 내시, 사진은 미국의 저스틴 프렌치, 영상은 큐엔 마이크, 세트 디자인은 '이사벨+헬렌'이 맡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19년 SK 게이밍에 투자했다.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의 e스포츠 팀 투자였다.



이제 캠핑도 전동화 시대

Concept EQT Marco Polo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동화 전략은 모든 세그먼트의 차종을 망라한다. 캠핑카 산업을 위한 전기 모빌리티 솔루션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2월 2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콘셉트 EQT 마르코 폴로를 선보였다. 순수 전기밴 EQT에 자사 캠핑카 솔루션인 마르코 폴로를 결합한 결실로, 전동화 캠핑의 청사진이다. 올 하반기 양산 및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RESERVED FOR
CONCEPT EQT
MARCO POLO



숲속에 주차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V 캠핑카이다.
Concept EQT 마르코 폴로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The new EQT는 소형 전기 승합차다. 메르세데스 밴은 크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100% 전동화를 꿈꾼다.

최근 국내에서도 캠핑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 캠핑 시장규모는 약 4조 원, 캠핑 인구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덩달아 캠핑카 판매도 수직 상승 중이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캠핑카는 4만8,886대. 2012년 이후 10년 동안 8배 이상 늘었다.

캠핑카의 미래는 전동화

캠핑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공간 및 성능과 함께 전력량을 꼽는다. 움직이는 집의 개념인 만큼 캠핑카 내에서 가전, 냉난방을 위한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핑카 설계와 원가에서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만약 캠핑카를 아예 전기차로 만들면 이러한 고민이 줄어들다. 이미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까닭이다.

또 배출 가스 인증 등 환경문제에서도 자유롭다. 특히 캠핑카는 각종 장비 때문에 무게가 늘어나므로 낮은 회전수에서 큰 힘을 내는 디젤엔진을 주로 장착한다. 최근 일부 캠핑카 수입업체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떼어내 무게를 맞춘 뒤 비교적 간단한 개별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 캠핑카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이 생생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The new EQT가 지난해 연말 공개한 Concept EQT 마르코 폴로(Marco Polo)가 그 주인공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 상인으로, 중국 각지를 여행한 마르코 폴로(1254~1324)는 원나라에서 17년간 관직에 몸담기도 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쓴 <동방견문록>은 훗날 유럽의 대항해시대를 연 계기로 평가받는다.

마르코 폴로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산하 메르세데스 밴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캠핑카 모듈 브랜드다. 1984년 209 D로 시작했

으니 4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마르코 폴로는 시탄(Citan), T-Class, V-Class, 스프린터 등 밴 라인업 차종을 밀바탕으로 침대와 주방을 더한 캠핑카다. The new EQT와 The new EQV 등 전동화 밴으로 영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지붕과 실내 2개 침실

캠핑카는 크게 버스나 대형 트럭 기반의 클래스 A와 승합차 기반의 클래스 B, 중소형 밴이나 트럭에 별도 제작한 캐빈을 얹은 클래스 C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마르코 폴로는 이 중 클래스 B에 해당한다. 겉모습이 기본 모델과 비슷해 지하 주차장이나 세차장 출입 등 일상 사용이 편하고, 고속 주행 시 공기저항이 적어 운전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

“우리에게 미래는 밴의 크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전기차예요. 순수 전기 구동 방식의 The new EQT는 메르세데스 밴의 전략적 방향

“우리에게 미래는 밴의 크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전기차예요. 순수 전기 구동 방식의 The new EQT는 메르세데스 밴의 전략적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The new EQT 마르코 폴로를 판매해 마르코 폴로 제품군의 범위를 전기 마이크로 캠핑카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캠핑카의 실내를 둘러보면 숨바꼭질하는 기분이다. 매트리스 받침 속에 휴대용 가스레인을 숨기다니!



역시 제조사가 직접 챙기면 캠핑카의 품질도 믿을 만하다. 디자인과 소재, 색감 모두 고급스럽다.



두 사람을 위한 식탁으로 변신한 공간. 모든 가구는 두 사람이 5분 내로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Concept EQT 마르코 폴로는 침실로 쓸 팝업식 지붕과 드나들기 편한 슬라이딩 도어가 특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올 하반기 Concept EQT 마르코 폴로를 양산차로 출시할 예정이다.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Concept EQT 마르코 폴로를 판매해 마르코 폴로 제품군의 범위를 전기 마이크로 캠핑카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영업 책임자인 클라우스 레쿠글러(Klaus Rehkgler)의 설명이다.

Concept EQT 마르코 폴로의 밑바탕은 The new EQT 롱 휠베이션이다. 아담한 차체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침실을 지붕 위로 올렸다. 사용할 때 지붕 뚜껑 앞쪽을 들어 올려 경사진 지붕 밑 다락방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클래스 B 캠핑카에서는 교과서적 방식이다. 팝업 루프는 가위형 디자인 덕분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0.97m의 루프 침실 외에도 실내 뒤쪽에 2×1.15m의 접이식 침실을 추가로 마련했다. 10cm 두께의 매트리스는 디스크 스프링 시스템을 갖춰 가장자리까지 인체 공학적 편안함을 보장한다. 침대 프레임을 앞으로 당겨 매트리스를 접을 수도 있으며, 차창에는 햇살과 남의 시선을 막아줄 암막이나 환기를 도울 방충망을 씌울 수 있다.

주방과 식탁 갖춘 이동식 홈

The new EQT 롱 휠베이션의 차체 길이×너비×높이는 각각 4,498×1,859×1,819mm. 팝업식 루프를 달면 키가 조금 커지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측은 “높이 2m로 제한된 지하 주차장도 드나드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한다. 차체 좌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 너비 614mm, 높이 1,059mm의 넉넉한 출입구를 확보했다. 트렁크 높이도 561mm라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하다.



클래스 B 캠핑카는 밑바탕이 큰 차종과 외관 차이가 없어 일상과 레저에 두루 쓸 수 있다.



16L 용량의 냉장고도 갖췄다. 쓰지 않을 땐 감쪽같이 수납할 수 있다.

Concept EQT 마르코 폴로는 좌석을 1~2열만 갖추고, 뒤쪽은 수납 및 주방, 취침 공간으로 활용한다. 싱크 볼과 수전, 16L 용량의 미니 냉장고, 12L 청수 탱크, 가변 식탁 등 크기만 작을 뿐 캠핑에 필요한 장비는 빠짐없이 갖췄다. 조리 기구는 인덕션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두 가지다. 특히 수납공간을 다양한 서랍 형태로 만들어 짐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

실내 가구는 The new EQT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도록 소재와 색감을 신중하게 골랐다. 예를 들어 가구 앞판의 패넬을 아볼라(avola) 체리목으로 마감했고, 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간접조명을 설치했다. 7개 USB 포트를 갖춰 지붕 위를 포함해 각종 전자 기기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 경우 옵션으로 태양광 패넬과 추가 탈착식 배터리를 달면 된다.

Concept EQT 마르코 폴로는 최고출력 122마력, 최대토크 24.9kg·m의 전기모터를 얹었다. 45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안전을 위해 앞뒤 액셀 사이 바닥에 깔았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룹 차원의 ‘앰비션 2039’에 맞춰 2039년까지 모든 차종을 탄소 중립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전기벤 모듈 아키텍처 ‘VAN.EA’를 개발 중이다.



The new EQT의 주요 제원	
길이×너비×높이	4,498×1,819×1,859mm
최고출력	122마력
최대토크	24.9kg·m
구동 방식	앞바퀴 굴림
1회 충전 주행거리	282km (유럽 WLTP 기준)
최고속도	시속 134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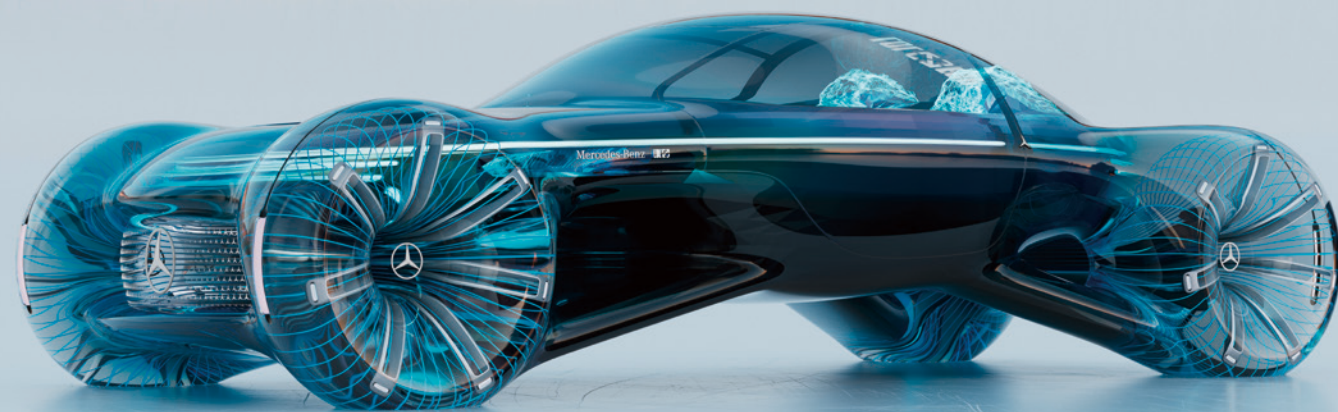
메타버스로 뛰어든 메르세데스-벤츠

지난해 11월 5일,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치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가상 쇼 카를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로젝트 SMNR'이 낳은 결실로, 해당 게임을 제작한 라이엇 게임즈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게임 특유의 상상력을 녹여 완성했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지난해 11월 5일,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라이엇 게임즈와 손잡고 진행한 '프로젝트 SMNR'의 결실인 가상 쇼 카를 공개했다.



디자이너들은 물성과 물리법칙을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 디자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라이엇 게임즈의 대표작 리그 오브 레전드와 2025년까지 스폰서 계약을 연장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 허문 도전

2022년 11월 5일,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체이스 센터에서 치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이하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가상의 쇼 카 '프로젝트 SMNR'을 공개했다. LoL은 10명이 5명씩 팀을 이뤄 싸우는 대전 게임으로, 미국의 게임 스튜디오 겐 e스포츠 대회 주관사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의 대표작이다.

최근 메타(meta)가 화두다. '가공' 또는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여러 단어와 합성해 다양한 신조어를 파생시켰다. 메타버스(metaverse)가 대표적이다.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단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인지는 '메타인지적 지식'의 줄임말이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번에 메르세데스-벤츠가 공개한 쇼 카는 오로지 메타버스만을 위한 존재다.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이너들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재정의할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우린 처음으로 물성과 물리법칙을 제쳐둔 채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의 설명이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결승전을 치렀다.
최종 우승은 한국의 DRX 팀이 차지했다.



가상 쇼 카의 바퀴와 차체에는 심해 생물처럼
빛을 내는 에너지 입자가 흐른다.



휠의 허브는 안쪽으로 터널처럼 빨려 들어간 형태다.
그 앞에 세 꼭지별이 동동 떠 있다.

SMNR은 ‘Summoner(소환사)’의 약자로, LoL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사용자)의 아바타를 일컫는 용어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SMNR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자인 철학인 ‘감각적 순수미 (sensual purity)’를 오롯이 구현해냈다. 양산차가 그렇듯 요철이나 이음매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표면으로 빛어냈는데, 반투명 물질로 가정해 더욱 환상적 분위기다. 오직 2명만을 위한 승객실은 차체 정중앙에 자리 잡았다. 이곳을 중심으로 차체의 네 귀퉁이를 큼직한 바퀴들이 떠받친 모양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자동차 개념이나 열개와 사뭇 다르다. 휠은 차체에 매끄럽게 녹아들었고, 그 중심축인 허브는 차체 안쪽으로 터널처럼 빨려 들어갔다. 대시보드 위엔 홀로그램으로 게임 지도를 띄운다.



가상 쇼 카는 이렇게 대시보드에
홀로그램으로 지도를 띄운다.

팬 커뮤니티 겨냥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SMNR의 핵심 개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디자인 요소를 이룬 ‘에너지틱 코어(energetic core)’, 둘째는 게임 내에서 ‘구역화 분자(zoning molecules)’라고 부르는 자유 유동 입자다. 심해 생물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에너지 입자는 프로젝트 SMNR의 표면과 실내·휠 등을 타고 흐르는데, 전 세계 팬 커뮤니티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0년 라이엇 게임즈와 글로벌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이벤트의 독점 파트너십을 최초로 맺었으며, 최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글로벌 e스포츠 문화를 추가로 개발하고, 전 세계 LoL 커뮤니티와 접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메르세데스-벤츠는 The new EQS의 MBUX를 통해 LoL 디자인 요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MBUX 스킨과 쇼 카는 두 협업 파트너 간 공동 창작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 고든 바그너는 “비범한 가상 쇼 카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졌다”고 강조했다. LoL 글로벌 책임자 나즈 알레타하(Naz Aletaha)는 “약속대로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6주 동안 주요 도시를 도는 결승전 기간 동안 Mercedes-EQ EQS SUV가 월드 트로피를 운반했다. 결승전을 치른 라이엇 게임즈 팬 빌리지엔 250m² 면적의 브랜드 체험 공간 ‘메르세데스-EQ 하우스’도 세웠다. 최종 우승 팀은 월드 트로피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가 디자인한 챔피언십 링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과연 우승컵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거머쥔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바로 대한민국의 DRX 팀이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 T1 팀을 누르고 정상에 오른 이번을 연출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올해로 메르세데스-벤츠는 라이엇 게임즈와 LoL 파트너십 4년차를 맞는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벤츠는 모든 활동을 글로벌 팬 커뮤니티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클래스 효성 고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경험

CitNOW

더클래스 효성이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춰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편의 서비스를 또 한 번 선보인다. 차량 점검 서비스 ‘씨잇나우(CitNOW)’다.

Writer 남지연 Photo 임익순

말로만 설명하는 시대를 지나 직접 보여주는 시대로

메르세데스-벤츠는 온라인 웹을 통해 서비스센터 예약은 물론, 서비스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드라이브(Digital Service Drive)’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모바일 동영상으로 차량 점검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씨잇나우(CitNOW)’를 출시했다.

CitNOW는 차량 점검 내용을 고객이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테크니션이 차량 점검 내용을 설명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고객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하면 담당 테크니션이 차량을 점검

한 후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CitNOW 영상 촬영을 진행한다. 담당 테크니션이 동영상으로 해당 부위를 촬영해 어떠한 사항을 발견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구두로 설명한다. 영상을 보고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차량의 특이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영상은 이메일이나 SMS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 내 링크를 클릭해 테크니션이 직접 촬영한 차량 점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이 차량 수리에 대한 부품 및 공임 정보를 바로 확인하도록 디지털 견적서를 작성해 영상과 함께 전달한다. 전달받은 영상을 본 고객이 차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승인하면 정비를 시작한다.



정비 중인 차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테크니션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차량 점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테크니션 이현명 과장(왼쪽)과
서비스 어드바이저 유성수 차장(오른쪽)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위한 더클래스 효성의 끊임없는 노력

CitNOW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센터가 고객과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센터를 찾은 고객의 차량이 입고될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CitNOW를 도입한 후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의 서비스어드바이저 팀장을 맡고 있는 유성수 차장은 “CitNOW를 통해 고객이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센터와 고객 간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 것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차량 상태와 유지·보수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차량 점검에 대한 내용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션이 차량을 정비하며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니 고객과 소통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고객분들께서는 내 차량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지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을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설명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tNOW를 도입한 이후 고객분들께서 테크니션이 차량을 정비하며 촬영한 영상을 통해 내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정비 내용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점검 이후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기기 전 고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 역시 CitNOW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담당 어드바이저가 말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면 보다 직관적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유성수 차장은 “정비 내용을 전달했을 때 수리 견적서를 본 고객의 결정 및 승인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다”라며 CitNOW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전달했다.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테크니션 이현명 과장 역시 “정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소통할 일이 없어 고객의 직접적인 반응을 느끼지 못했는데,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이야기를 들으니 CitNOW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한다”라고 전했다.



CitNOW 서비스
자세히 보기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는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강북권에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994.56㎡로 지하 1층에 있으며, 일반 수리 베이 총 7개를 구비해 하루 40대 이상의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신사 서비스센터는 최고 기술진과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인증한 최고 전문가로 이뤄진 신사 서비스센터는 고객에게 항상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일반 정비는 물론, 사고 차 접수까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서비스 예약 및 문의

02-540-7900

영업시간

월~금요일 09:00~20: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휴무

고객과 상담 중인
서비스 어드바이저
유성수 차장

EXPRESS
SERVICE
by Mercedes-Benz



앞뒤 램프는 LED로 불을 밝힌다.



55년 역사의 게임 체인저

Mercedes-AMG C 63 S E PERFORMANCE

“우리 55년 역사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Mercedes-AMG 스스로 극찬한 고성능 콤팩트 세단이 등장했다. 바로 C 63 S E PERFORMANCE. 차체를 감싼 알파인 그레이 유니 페인트는 물론 매트한 블랙 컬러의 20인치 단조 휠 등 겉모습부터 범상치 않다. 뒷바퀴엔 전기모터를 장착했고, 고성능 AMG 배터리도 실었다. 터보차저엔 F1 머신의 ‘MGU-H’를 적용했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Mercedes-AMG C 63 S E PERFORMANCE는 퍽업퍽업 긴 이름만큼이나 의미 또한 남다르다. Mercedes-AMG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정의할 만큼 기술을 아낌없이 갈아 넣은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기나긴 모델명으로도 표현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사륜구동(4MATIC)과 뒷바퀴 조향, F1 머신의 전동화 기술까지 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 가히 모든 걸 다 갖춘 C-Class의 ‘끝판왕’답다.

F1 기술로 방점 찍은 고성능

E PERFORMANCE는 엔진과 전기모터의 시너지를 암시한다. 하지만 연비에 올인한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이름에서 생각한 ‘F1 에디션’이 단서다. F1은 2014년부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파워트레인을 도입했다. 터보차저에 전기모터 겸 발전기인 ‘MGU-H(Motor Generator Unit-Heat)’, 일명 ‘E-터보’를 더한 V6 1.6L 엔진으로 무려 1,000마력 이상을 낸다. 2013년 F1은 V8 2.4L 자연 흡기 엔진으로 레이싱당 160kg의 연료를 태웠다. 반면 2020년엔 100kg으로 줄였다. 2026년부터 F1은 하위 팀과 형평성을 위해 비싸고 복잡한 MGU-H를 버렸다. 대신 회생제동을 맡은 ‘MGU-K’의 성능을 3배 강화해 총출력의 절반을 전기로 뽑아 경기당 연료 소모를 70kg까지 낮출 전망이다. 또한 100% 친환경 연료만 쓴다. C 63 S E PERFORMANCE F1 에디션은 Mercedes-AMG 페트로나스 팀 F1 머신처럼 MGU-H를 장착했다. 터보차저는 엔진 배기 압력으로 회전하는 터빈과 그 힘으로 흡기를 압축하는 컴프레서로 구성한다. 지름 4cm의 MGU-H는 터빈과 컴프레서를 잇는 축에 자리한다. 터빈 회전력으로 배터리를 채우고, 때론 모터로 컴프레서를 강제 구동해 순발력을 높인다.

농밀하게 집약한 파워와 장비

MGU-H를 품은 Mercedes-AMG의 첫 양산차는 지난해 출시한 C 43 4MATIC,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스타터 제너레이터

몸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버킷 시트는 기본이다.



터보차저와 뒤 차축에 각각 전기모터를 얹어 수시로 엔진에 힘을 보탠다.



세계 최강의 직렬 4기통 엔진과 2개의 전기모터를 합쳐 총 680마력을 뿜는다.

이터, MGU-H 등 전기모터 2개와 배터리 사이의 전력 평형을 책임졌다. C 63 S E PERFORMANCE는 한층 화끈하다. 400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204마력 뒤 차축 전기모터, 6.1kWh의 AMG 고성능 배터리를 더했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직렬 4기통 2.0L(1,991cc) 가솔린 직분사 터보 476마력 엔진을 짝지었다. 그 결과 시스템 최고출력 680마력, 최대토크 104kg·m를 내뿜는다. 변속기는 습식 멀티 클러치를 사용하는 9단 자동(AMG 스포드 시프트 MCT 9G). 실시간 감쇠력 제어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뒷바퀴 조향, 완전 가변 4MATIC(사륜구동)도 기본으로 갖췄다. 성능은 역대 C-Class 기반의 AMG 모델 가운데 으뜸이다. C 63 S E PERFORMANCE는 0→시속 100km 가속을 3.4초에 끊고, 시속 270km까지 달린다. 누구나 모터스포츠에서 양산차로의 기술 낙수 효과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떤 브랜드도 Mercedes-AMG만큼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진 않다. C 63 S E PERFORMANCE가 그 생생한 증거다.

뒷날개는 시속 270km에서 공무니를 강하게 누르는 힘을 만들어낸다.



680마력짜리 끝판왕이지만 과시를 위한 장식은 최대한 자제했다.

여섯 가지 매력 포인트로 살펴본 Mercedes-EQ The new EQE 350+

The new EQE는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두 번째 순수 전기 세단이다. 플랫폼과 주요 기술은 The new EQS와 공유하되 아담한 덩치와 가벼운 차체로 다루기 쉽고 움직임도 한층 사뭇사뭇하다. 지난해 출시한 이후 인기몰이 중인 The new EQE 350+의 매력 포인트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실제 주행과 관련한 매력 소개는 리뷰에서 이어진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1 고급 전기차의 선두 주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억 원 이상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5,000대를 넘었다. 고급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다. 그중 The new EQS와 The new EQE를 합친 판매 대수가 2,752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8월 투입한 EQE 350+는 1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단일 모델로 1,080대나 팔려 고급 전기차 인기몰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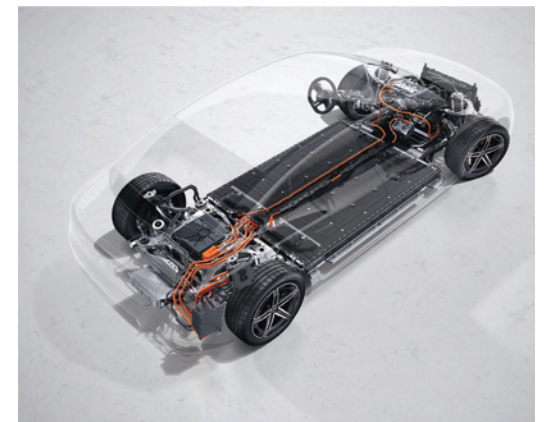
2 전통적 구성의 세단

The new EQE는 메르세데스-EQ가 The new EQS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프리미엄 세단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전통적 세단 스타일로는 최초다. The new EQS는 트렁크 도어와 뒷유리가 한 덩어리를 이룬 해치백인 까닭이다. 반면 The new EQE는 The new EQS와 실루엣이 비슷할 뿐 트렁크 도어만 따로 여닫는 방식이다. 물론 뒷좌석을 4:2:4로 나눠 접을 수 있어 활용성은 해치백 못지않다.



3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The new EQE는 메르세데스-EQ의 프리미엄 전기차 아키텍처 'EVA2'를 바탕으로 한다. 엔진 차종과 함께 쓰는 범용 플랫폼보다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공간을 농밀하게 집약할 수 있다. 동급인 E-Class보다 안팎 모두 한층 여유로운 비결이다. 실내 길이는 80mm, 앞좌석 어깨 공간과 뒷좌석 무릎 공간은 각각 27mm씩 넉넉하다. 최적화된 설계 덕분에 효율성도 훨씬 높다.



4 전방위적 친환경성

메르세데스-벤츠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The new EQE의 '360도 환경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가령 공기저항계수 Cd 0.22로 최고 효율을 꿈꾼다. 또 총중량 78.3kg의 184개 부품을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들었다. 배터리의 코발트 함량은 10%로 줄여 지속 가능성을 배려했다. 연간 조달 물량의 90%를 차지하는 공급업체들이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5 최고 수준의 안전성

최근 유료 NCAP(신차 평가 프로그램) 안전 평가에서 표준 사양의 The new EQE가 별 5개 만점을 받았다. 또 옵션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조 장비에 대한 특별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기록했다. 유료 NCAP는 유럽 교통 부처와 자동차 클럽 및 보험 협회로 구성된 조직으로, 충돌 테스트와 각종 안전 평가를 수행한다.



6 달리는 공기청정기

The new EQE 350+는 공기 청정 패키지가 기본이다. 안팎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MBUX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보여준다. 흡착 면적이 축구장 150개 규모와 맞먹는 고효율 미립자(HEPA) 필터로 공기를 정화한다. 그 결과 꽃가루 혹은 미세 입자를 최대 99.65%까지 정화할 수 있다. 600g의 활성탄층은 항균 효과로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다.

오늘 경험하는 미래의 모빌리티 Mercedes-EQ The new EQE 350+

The new EQE는 메르세데스-EQ의 기준점이다. 기함의 상징성 때문에 무리하거나 얇게 집약한 플랫폼을 굳이 큰 바퀴에 얹어 덩실 띄울 필요가 없다. 트렁크 도어만 따로 여닫는 전통 세단 레이아웃에 외모까지 The new EQS를 쏙 빼닮았다. 아주 빠르진 않으나 시종일관 조용하고 편안하며, 코일 스프링을 쓰면서도 승차감에 품위가 스며들었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편집장) Photo 서동현



A필러 아래쪽 창에 있는 모델명으로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다.



Mercedes-EQ The new EQE 350+는 덩치와 무게, 파워가 근사한 균형을 이룬다.

그래, 이 맛이다. 삼박자가 짙하게 맞았다. 덩치와 무게, 파워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균형을 이뤘다. 메르세데스-EQ가 앞으로 크기와 장르가 다른 여러 차종에 쓸 프리미엄 전기차 아키텍처 'EVA2'의 중심은 예상대로 The new EQE였다. 넘치거나 모자라는 느낌 없이 잠재력을 100%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운전 재미로 이어졌다.

정숙성이 선물한 집중과 몰입

엔진이 없으니 조용한 게 당연한데도 새삼 놀랍다. 윈도가 웨더 스트립을 파고들며 닫힌 이후 귀 먹먹한 정적은 멈추든 달리든 한결같다. 특수 음향 필름을 머금은 윈도로 구성된 '어쿠스틱 컴포트 패키지'의 힘이다. 음소거 버튼을 누른 채 영상을 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신경이 시각으로 집중되면서 놀라운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The new EQE의 실내가 딱 그렇다. 너무 조용하니 은연중 촉각을 곤두세운다. 스티어링 휠을 감고 풀 때 앞타이어가 뭉그러지면서 아스팔트의 요철과 주름에 저항하고,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뗄 때의 미묘한 단계를 의식하게 된다. 여기서 조금 더 감각을 확장하면 2,355kg에 달하는 공차 중량의 3차원적 움직임을 너그럽고 노련하게 제어하는 컴포트 서스펜션의 마법에 눈을 뜨게 된다.

건강한 피부가 트러블에 강하듯, 잘 조율한 서스펜션은 노면을 가리지 않는다. 잘 닦은 포장도로는 그야말로 비단길이고, 심지어 관리 상태가 엉망인 국도나 대충 만든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조차 품위를 잃지 않는다. 비싼 에어 서스펜션이면 모를까, 정직한 코일 스프링과 절묘한 지오메트리만으로 이런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는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이외엔 몇 없다.



스포츠 쿠페처럼 미끈한 The new EQE 뒤편



실내는 겉모습처럼 세련되면서도 간결하고 차분한 분위기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로, 12.3인치 와이드스크린 콕핏이다.



센터페시아에는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심었다.

메르세데스-EQ 특유의 디자인

The new EQE는 메르세데스-EQ 브랜드의 전형적 디자인 요소로 단장했다. 보닛과 지붕, 트렁크를 잇는 실루엣은 줄을 바짝 당긴 활에서 영감을 받은 ‘원 보우(one-bow)’ 라인으로 다듬었다. 매끈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었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실루엣을 다듬다 보니 앞 유리가 운전석에서 멀찍이 나아간 ‘캡포워드(cab-forward)’ 스타일로 수렴했다. 그래서 결국 The new EQS를 쏙 빼닮았다. 특히 덩치 차이를 짐작하기 힘든 먼발치에서 보면 The new EQE와 The new EQS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메르세데스-EQ 디자이너들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137년 역사의 모기업에서 파생한 신생 브랜드인 만큼 정체성 구축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까닭이다. 게다가 세 꼭지별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믿는 구석도 있을 테고.

The new EQE는 겉모습의 맥을 이어 실내도 간결하게 디자인했다. 국내 판매 중인 EQE 350+는 센터페시아에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심었다. 개인적으론 사방팔방 시커먼 하이퍼 스크린보다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라 좋다. 디스플레이 면적이 한정적이고, 촉각 피드백까지 제공해 운전 중 더듬어 쓰기도 편하다. 계기판은 12.3인치 와이드스크린 콕핏이다.

시대를 한발 앞서는 자긍심

어느덧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몽환적 인공 사운드를 나지막이 울리며 다가오는 전동화 자동차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반대로, 내가 전동화 자동차의 운전대를 질 때는 아직 까지도 은근히 자긍심이 샘솟는다.

소유와 운전만으로도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은 The new EQE가 주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실제 기술적으로 최첨단이기도 하고, 가령 어둠 속에서 전방을 비추는 디지털 라이트는 좌우 각각 130만 픽셀로 구성했다.

기본 사양인 ‘어댑티브 상향등 어시스트 플러스’는 앞서 달리거나 마주 오는 차 주위만 정교하게 오려 그림자를 드리운다. 표적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주행 중에도 조명 쇼는 실수 없이 이어진다. 내비게이션은 디스플레이의 실시간 영상에 그래픽을 입혀 증강 현실로 띄운다.

‘MBUX(메르세데스-벤츠 사용자 경험)’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의 체계적 메뉴와 세심한 촉각 피드백마저 쓸 일이 없게 만드는 지름



변속기 없는 EQE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의 강약을 조절한다.

길이다. 국산과 수입차를 통틀어 음성인식 시스템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게다가 클라우드 서버와 연계한 딥 러닝으로 나날이 진화 중이다. 한 번도 안 써봤으면 모를까, 일단 경험하면 너무 편하고 요긴해 반할 수밖에 없다.

292마력, 6.4초의 준수한 성능

The new EQE 350+의 동력원은 전기 구동계(eATS)다. 뒤 차축에 최고출력 215kW(292마력), 최대토크 57.6kg·m의 ‘영구 자석 동기 모터(PSM)’를 얹고 뒷바퀴를 굴린다. 회전자에 영구 자석을 달아 전류 공급 없이도 자기를 유지하고, 고정자에 코일을 비스듬히 감아 진동을 줄였다. 6상 설계로 120도마다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3상 전기모터보다 훨씬 강력하다.

The new EQE 350+는 EQE 라인업의 엔트리 모델이다. 하지만 0→시속 100km 가속 시간 6.4초로, 도로 위 교통 흐름을 주도하기엔 충분한 성능이다. 시속 210km에 묶은 최고속도가 다소 서운할 수 있는데, 막상 전기차 오너가 되면 알아서 과속을 삼가게 되니 상관없다.

배터리는 모듈 10개를 엮은 90kWh 용량의 리튬이온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71km 달릴 수 있다. The new EQE의 엔트리 모델인 만큼 최대 4.5도의 뒷바퀴 조향은 옵션으로도 고를 수 없는 데 괜찮다. 인공적 도움 없이도 충분히 민첩하고 안정적인 까닭이다. 또 The new EQS처럼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Mercedes-EQ EQE 350+의 주요 제원	
길이×너비×높이	4,965×1,905×1,510mm
최고출력	215kW(292마력)
최대토크	57.6kg·m
구동 방식	뒷바퀴 굴림
0→시속 100km 가속 시간	6.4초
최고속도	시속 210km
1회 충전 주행거리	471km
승차 정원	5인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기능을 삼켜 물리적 버튼이 거의 없다.

마치 달항아리처럼

우주가 생겨날 때 수축과 팽창을 했다지. 사람도 그렇구나. 수많은 생각은 팽창하고,
때로 마음이 수축되며 우주처럼 무한해져. 우주라는 원대한 포부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한없이 크고 고요한 고흥, 마치 달항아리 같아.

Editor 정상미 Photo 이효태



사진 속 차량 모델은 The new C 200



고흥에서 우주로 갑니다

지구상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는 없는 것 같다. 인간이 지금까지 마음먹고 못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러시아가 기술력을 공개하든 말든, 우리는 2013년 끝내 나로호(KSLV-I)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쏘아 올린 특별한 장소는 전남 고흥이다. 고흥반도 남쪽, 나로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기지인 나로우주센터를 건립했고, 나로호의 이름도 나로도를 본 뜬 것이다. 이후 고흥에는 우주 전진기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우주산업 메카로 불리고 있다. 향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목표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오는 5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 3호의 성공을 기원하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으로 출발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야외 전시장의 나로호. 로켓 광장에는 1·2단형 고체추진 로켓, 액체추진 과학 로켓 KSR-Ⅲ 등 로켓 모형을 실물 크기로 전시해 인증샷을 남기기 좋다.

지난 2009년 나로우주센터 준공과 함께 9월에 정식 개관한 우주과학관은 우주에 관한 표면적 지식을 쌓고, 나아가 우주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곳이다. 중심 공간인 상설 전시관은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 달탐사 등 테마로 우주과학의 원리를 탐구한다. 탑재부와 추진부로 나뉘는 우주발사체 내부 구조부터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해 지난 2002년 발사에 성공한 액체추진체 과학 관측 로켓의 실제 부품도 전시물로 만날 수 있다. 2층으로 발길을 돌리면 천장에 장식한 ‘호버만의 구’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처음에는 작은 구 모습이다가 점점 팽창하고, 급격히 수축하는 조형물은 우주 탄생의 신비를 담은 작품. 지정된 곳에서 있으면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작은 우주를 보는 듯 역동적이고 신비롭다.

펼쳐진 머리를 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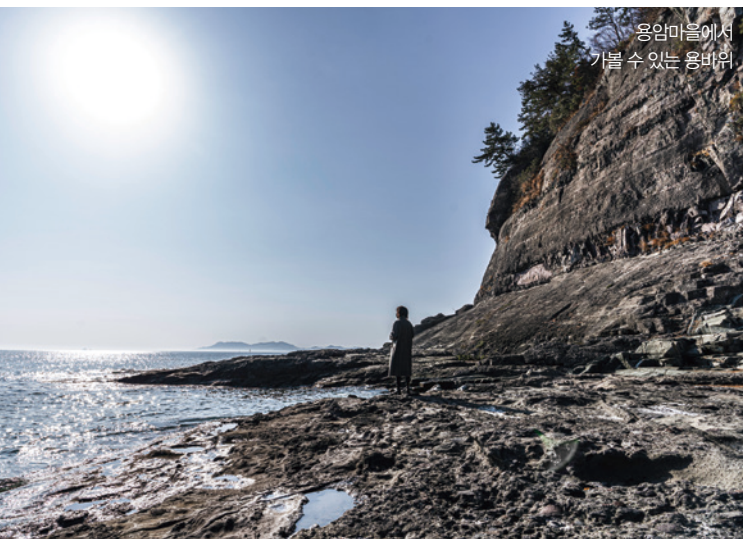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하며 걷는 여행 코스로 미르마루길이 있다. 미르는 용, 마루는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우주발사전망대, 남열마을, 미르전망대, 용암마을을 따라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우주발사전망대에서 나로우주센터는 해상으로 17km 직선거리에 위치한다. 누리호 3호기 발사를 앞두고 역사적 장면을 마주하기 위한 사람들로 전망대는 더욱 뜨거워질지도 모르겠다. 바다와 바로 맞닿은 용바위는 가히 절경이다. 용암이 분출하며 생겨난 바위 산은 높이 약 120m로 돌개구멍과 주상절리, 기이한 모양의 암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절벽 한가운데 계단식으로 생겨난 암벽은 거대한 용이 바위산을 뚫으며 하늘로 올라간 흔적이라고 전해진다. 우주를 논하는 고흥에 용의 전설이 새겨져 있어 이리니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루의 시간으로는 차마 다 답을 수 없는 고흥, 특히 근사한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 대표 스폿도 한참 떨어져 있어 여행객에게는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다. 먼저 소개할 곳은 고흥반도 남서쪽에 자리한 녹동항. 물자와 사람이 오가는 항구 인근에는 먹을거리



용바위에 조성한 황금빛 용 조형물



한국의 하롱베이로 불리는 미르마루길 일대 풍경



용암마을에서
가볼 수 있는 용바위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하며 걷는 여행 코스로 미르마루길이 있다. 미르는 용, 마루는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우주발사전망대, 남열마을, 미르전망대, 용암마을을 따라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고흥 썬밸리조트, 수변노을공원에서
일몰의 시간을 기다린다



국가어항인 녹동항의 풍경이 펼쳐진다



녹동항 강태공이
낚은 송어

가 넘쳐나 여행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1971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남해 중서부의 녹동항은 인근의 소록도, 거금도, 거문도, 백도, 제주도를 오가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자 인근 섬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 모이는 집산지이기도 하다. 녹동항 바다정원에 서면 소록도, 소록대교, 거금대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2011년, 무려 9년 만에 개통한 거금대교는 녹동항과 소록도가 이어진 소록대교와 연결된다. 위층은 자동차 전용 구간, 아래층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 전용 도로로 포장해 바다 위 산책로라 불리는데, 거금대교 배경의 일몰이 장관을 연출한다.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마주했다면 그 대미를 중산일몰전망대에서 장식해도 좋을 듯하다. 드넓은 갯벌로 떨어지는 낙조는 녹동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남양면 77번 국도변에 위치한 중산일몰전망대는 너른 주차장에 전망대를 마련해 찾아가기도 쉬울뿐더러 워낙 입소문 난 곳이라 일몰 한두 시간 전부터 출사객으로 분주해진다.



녹동항 바다정원은 일몰 맛집

목가적 분위기 가득한 겨울 스포츠의 성지

스위스 그린델발트 Switzerland Grindelwald

스위스의 모든 지역이 사계절 각각 아름답지만, 산악 도시 그린델발트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도시로 꼽힌다. 그린델발트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눈밭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는 기본에 나무 자전거와 전통 썰매도 탈 수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체험까지 가능하다.

Editor 두경아 Photo 스위스 정부 관광청(www.MySwitzerland.co.kr)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거대한 알프스산맥에 둘러싸여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 전통 가옥 샬레와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와 양 떼 모습이다. 이러한 목가적 분위기가 가장 아름답게 펼쳐진 곳을 꼽으라면 단연 그린델발트(Grindelwald)다. TV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윤세리(손예진 분)가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리정혁(현빈 분)과 만나는 장면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대자연 풍경이 바로 이곳 그린델발트였다.

그린델발트는 스위스 중부 베른주에 있는 산악 도시로, 해발 1,034m의 고지대에 위치한다. 알프스에서 가장 험난한 등반 루트를 자랑하는 아이저 북벽(Eiger Nordwand) 아래 자리 잡고 있어 ‘아이저 마을’로도 부른다. 피르스트·융프라우요흐·멘엘리헨 등으로 가는 곤돌라와 산악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스키 리조트가 자리해 거점 관광지로 인기가.

이 도시가 더욱 특별한 건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덕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하이킹과 플라이어(집라인)·레이 터보건 등을, 겨울에는 스키·썰매 등을 즐길 수 있는데, 모두 알프스의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어 더 즐겁다.

특히 이 도시는 겨울이면 즐거움이 배가된다. 겨울 액티비티의 천국일 뿐 아니라, 매년 1월 마지막 주에 세계 눈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도시 중앙 광장에 전 세계 예술가가 모여 3m 높이의 눈 블록을 조각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대회가 주요 행사다. 대회에 앞서 매년 특정 주제가 발표되고, 그 주제에 맞는 눈 조각이 중앙 광장에서 탄생한다. 이 기간에 마을 전역에서는 스위스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행사와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 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983년 일본의 한 예술가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거대한 눈 조각으로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40년간 전통을 이어온 이 대회는 2023년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엔 40주년을 맞아 ‘전통’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 Jungfraubahnen



그린델발트에서 멘을리헨으로
오르는 곤돌라

© Jungfrau Region Tourismus AG



집라인의 일종인 아이스 플라이어

© Jungfraubahnen

그린델발트에만 있다! 색다른 겨울 액티비티

그린델발트는 스키어들의 천국이다. 스키를 탄 채 출입이 가능한 호텔까지 있을 정도. 그린델발트-피르스트(Grindelwald-First), 클라이네샤이데그-멘을리헨(Kleine Scheidegg-Männlichen), 뮐렌-실트호른(Mürren-Schilthorn)은 총 213km의 스키 활강로를 갖추고 있는데, 속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슬로프 길이는 6~12km, 클라이네샤이데그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해발 2,000m 높이에 위치한 공식 스키&스노보드 학교가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장비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장비를 대여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터보건(toboggan)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나무 썰매다. 오래 전부터 알프스 지역에서 겨울철 운송 수단으로 사용해온 터보건은 특별한 기술이나 연습이 필요 없어 인기 있는 겨울 액티비티다. 특히 그린델발트에는 유럽에서 가장 긴 터보건 코스인 빅 핀텐프리트(Big Pintenfritz)가 있다. 파울호른(Faulhorn)에서 시작하는 이 루트는 부살프(Bussalp)를 지나 그린델발트 오베렐(Grindelwald Oberäll)로 내려간다.

벨로게멜(velogemel)은 1910년 그린델발트에서 개발한 전통 스노 바이크로, 지금도 이 도시에서만 즐길 수 있다. 나무 자전거 모양의 벨로게멜은 탑승 방법도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브레이크 대신



겨울 액티비티 천국 피르스트

© Jungfrau Region Tourismus AG

신 발로 속도를 조절하며 스키를 타듯 슬로프를 내려와야 한다. 1996년부터는 벨로게멜 챔피언십도 진행해 이 도시가 벨로게멜에 얼마나 진심인지 엿볼 수 있다.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올해는 2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벨로게멜을 타고 해발 2,020m 부살프 오베를레거(Bussalp Oberläger)에서 출발해 해발 1,792m 미텔레거(Mittelläger)에 도착해야 한다.

피르스트에서는 집라인의 일종인 '아이스 플라이어'를 타고 빙하 위를 날아올 수 있다. 800m 높이의 로프에 매달린 채 최고 시속 84km의 속도로 새처럼 날아가며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곤돌라, 산악 열차 타고 오르는 피르스트·융프라우·멘을리헨

그린델발트를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든 꼭 찾아가는 세 곳의 명소가 있다. 피르스트, 융프라우요흐, 멘을리헨. 피르스트는 슈바르츠호른(Schwarzhorn) 경사면에 있는 2,168m 높이의 작은 정상이다. 그린델발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25분 정도 올라가면 피르스트 정류장에 닿는다. 이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구름다리인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 바이 티소(First Cliff Walk by Tissot)’를 걸을 수 있다.

바할프제(Bachalpsee) 호수까지 이어진 하이킹 코스는 꼭 걸어보길 권한다. 경사가 완만한 약 3km의 코스라 편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바할프제 호수에 비친 슈렉호른(Schreckhorn)과 아이저, 뮌히, 융프라우 풍경이 한 점의 그림 같다. 또한 집라인의 일종인 피르스트 플라이어(first flyer)와 글라이더를 타고 스릴을 즐기거나, 페달 없는 자전거인 트로티 바이크와 세발자전거인 마운틴 카트를 타고 그린델발트까지 신나게 내려올 수도 있다.

융프라우와 뮌히 사이 산마루인 융프라우요흐(Jungfrauoch)도 불만하다. ‘유럽의 지붕’이라 일컫는 이곳은 1912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발 3,454m에 기차역이 들어서 있다. 융프라우요흐는 1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구름다리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 바이 티소

© Jungfrau bahnen



110년의 역사를 지닌 융프라우 산악 열차

피르스트에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바할프제 호수



© Jungfrau Region Tourismus AG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 전망대



© Jungfrau Region Tourismus AG

내내 눈과 빙하를 볼 수 있어 여름 시즌에도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스키와 눈썰매, 집라인, 스노보드 등을 즐길 수 있는 스노편 파크(5~10월 운영)가 있으며, 그 바로 옆에 설치된 ‘빙하 어드벤처 트레일’은 알프스에서 가장 긴 22km 알레치 빙하의 크레바스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6~10월 운영).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발 3,571m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이자 기상 관측소인 스팅크스 전망대에 올라 알프스를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고, 알레치 빙하를 다듬어 만든 얼음 궁전에 전시된 얼음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멘을리헨(Männlichen)은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융프라우 여러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다. 그린델발트 터미널역에서 10인승 곤돌라를 타면 19분 만에 도착한다. 역에서 20분 거리인 왕관 모양 전망대에 올라가면 360도로 펼쳐지는, 숨 막히게 아름다운 알프스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수많은 하이킹의 출발점으로, 멘을리헨-클라이네샤이데그 코스는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꼽힌다.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겨울 감성 숙소 Ryokan Stay

일본 특유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료칸 여행은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하기에 제격이다. 따뜻한 온천탕을 갖춰
겨울이면 감성이 배가되는 료칸 여행을 국내에서 즐겨보자.

Editor 남지연 Photo 각 장소 제공

바다가 선사하는 고요한 심 호텔 치유

경상남도 남해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호텔 치유'는 건물 전면에 있는 대나무와 그 사이사이에 매달린 일본풍 조명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호텔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마치 일본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여기에 객실 바닥에 깔린 다다미와 벽에 걸린 유카타, 저녁 식사로 제공되는 정통 일식 코스 요리는 일본 료칸 감성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전 객실에 노천탕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객실을 바다 전망으로 구성한 호텔 치유는 어떤 객실에 묵어도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야외 온천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해 질 무렵의 시간은 절대 놓치지 말 것.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일몰이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노천탕 옆에는 작은 모닥불장이 있어 노천탕에 몸을 담근 채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운치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또한 딜럭스 룸을 제외한 객실에는 개별 야외 수영장이 있어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INFO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54

문의 055-863-9955





정갈하고 모던한 일본을 만나다 휴가스테이

해운대 송정 바닷가 앞에 자리 잡은 '휴가스테이'는 친구나 연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안성맞춤인 숙소다. 인피니티 풀을 즐길 수 있는 풀 빌라 객실 'Room-여름'과 히노키탕을 즐길 수 있는 료칸 객실 'Room-겨울'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해 사계절 언제든 찾아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겨울에는 히노키탕과 건식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료칸 스타일의 Room-겨울 객실을 찾는 이가 많다. 이곳의 히노키탕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 나가노현 기소군에서 자란 수령 120년 이상 된 편백나무로 제작해 투숙객의 만족도가 높다.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은 듯 크게 뚫린 창문 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다 보면 쌓인 피로가 절로 풀린다. 루프톱에 마련한 글램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건식 사우나 역시 투숙하는 내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INFO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164
문의 010-3310-0840

한국에서 즐기는 정통 료칸의 정수 토모노야 호텔&료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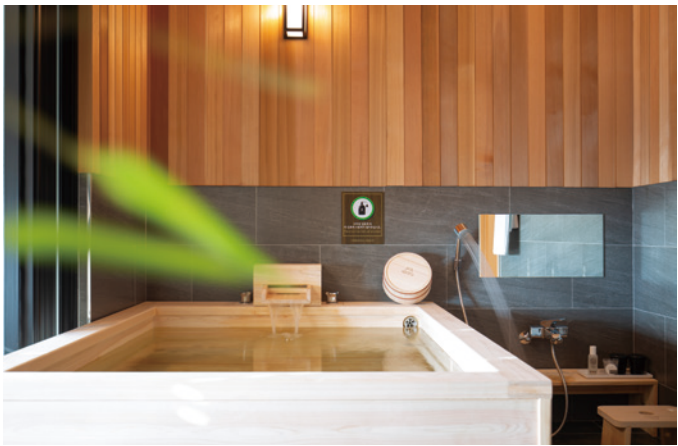
신라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천년 고도 경주에 위치한 '토모노야 호텔&료칸'은 정통 료칸을 모토로 내세울 만큼 일본의 료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재현한다.

객실에 들어서서 미닫이 문을 열면 만날 수 있는 다다미가 깔린 거실은 발을 내딛는 순간 일본 어느 집의 다다미방에 들어온 듯 생생한 촉감을 전달한다. 전 객실에 설치된 히노키 욕조는 여행 후 지친 몸을 녹이기에 부족함이 없고, 일본의 야외 온천탕을 연상시키는 야외 온수풀도 갖추고 있어 사계절 이국적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에게는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며, 유카타를 대여해주는 것은 물론 투숙객을 위한 포토스팟을 호텔 곳곳에 마련해놓아 마치 일본 여행을 온 듯한 인증 사진을 남기기 좋다.

경주의 대표적 유적지인 불국사, 석굴암, 문무대왕릉 등이 차로 10~30분 내외에 있어 경주 관광을 하기 좋고, 도보 10분 거리에 오류고아라 해변이 자리해 여름휴가 때 해수욕이나 캠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INFO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401
문의 054-775-7970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시간 니지모리 스튜디오&료칸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일본 에도 시대 마을을 완벽하게 재현한 일본식 테마파크형 드라마·영화 세트장이다. tvN 드라마 <구미호뎐>,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넷플릭스 드라마 <범인은 바로 너> 등의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스튜디오 내에는 일본식 정통 료칸을 완벽하게 구현한 숙소를 갖추고 있는데, 스튜디오라는 정체성을 잇는 듯 료칸 역시 허투루 흉내 내지 않았다. 일본 료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객실 곳곳에는 실제 일본에서 공수해온 그릇과 소품·회화를 배치했는데, 그중에는 150년 역사를 지닌 것도 있어 투숙하는 동안 일본 정취를 깊게 느낄 수 있다. 히노키 욕조로 만든 저쿠지에서 온천을 즐긴 뒤 료칸에서 제공하는 유카타를 입고 스튜디오를 산책하다 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일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기에 수시로 촬영이 진행되는데, 방문한 날짜에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면 촬영 현장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INFO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567-12
문의 카카오톡채널 '니지모리스튜디오'





변치 않는 가치에서 풍기는 남자의 멋과 품격 Classic Suit

**힙합과 믹스 매치 스타일 등이 트렌디한 패션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원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클래식이다.
특히 슈트에서 클래식은 모던하고 트렌디한 느낌마저 준다.
클래식의 정석으로 불리는 비스포크 슈트에 대하여.**

Writer 김진우(비스포크 리젠트 실장) Cooperation 비스포크 리젠트(02-553-6669)

현대사회에서 슈트는 비즈니스맨의 유니폼으로 여길 만큼 기본 패션 착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누구나 즐겨 입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슈트다. 가끔은 원치 않아도 사회적 강요에 따라 입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가장 많이 입지만 가장 신경 쓰지 못한 채(혹은 신경 쓰지 않고) 합리적 가격과 사이즈만 적당히 맞으면 별다른 불만 없이 입는 것도 바로 슈트다.

그런데 그런 슈트에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클래식 슈트를 입는다는 것은 패션에 대해 뭘 좀 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 여기서 말하는 클래식은 흔히 말하는 ‘고전적’ 의미가 아닌 일류, 최고 수준, 우아하다는 뜻이 강하다. 따라서 클래식 슈트란 예술적 경지에 오른 전문 기술을 지닌 장인의 손길을 거친 복식을 말한다. 클래식 슈트를 입는다는 것은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기운 장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볼 줄 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비스포크 리젠트는

2000년에 오픈해 비스포크 방식의 슈트 제작부터 슈트 스타일링까지 토털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남성복 전문 매장이다. 수십 년의 제작 경험을 통해 체형이 다양한 고객의 슈트 핏 밸런스를 찾아내는 것이 전문으로, 모든 고객이 리젠트 슈트를 입었을 때 가장 자신감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리젠트는 30년 이상 호흡을 맞춰온 테일러와 작업자를 한 팀으로 구성해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고객과 전담 작업자가 일대일 배정된다. 해당 고객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의해야 할 공정과 디테일한 부분을 기록해 항상 동일한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차별화한 제작 시스템 덕분에 리젠트를 찾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세상에 하나뿐인 비스포크 슈트

클래식 슈트를 입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클래식 슈트는 남자의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야 한다는 것. 클래식 슈트는 유행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디자인이 아닌, 슈트를 입은 사람이 가장 멋져 보이는 실루엣 자체를 탐구한다.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이자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멋진 슈트는 ‘비싸 보이는’ 슈트가 아니다. “오늘 정말 멋있는데”라는 찬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히 가격과 브랜드만으로는 얻기 힘들다. 좋은 소재와 몸에 꼭 맞게 조정된 정교한 디테일이 만나 완벽한 실루엣을 구현할 때 비스포크를 실현해준다. 비스포크는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작하는 것으로, 커스텀메이드(custom-made)라 일컫기도 한다. 옷뿐 아니라 시계, 가구, 신발, 가방, 자동차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만든 모든 제품을 말한다. 한마디로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슈트는 이러한 비스포크 과정을 거쳐 어떤 스타일의 실루엣이 잘 어울리는지, 체형에서 드러낼 부분과 감춰야 할 부분을 영리하게 반영해 자신의 취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완벽한 슈트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실력을 갖춘 테일러가 함께한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원단을 제시하고, 디테일 부분을 조정해 개성을 살리면서 절제된 멋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가 바로 테일러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브리타시 원단을 쓸 것인지,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이탈리아 원단을 쓸 것인지, 최근 출시된 기능성 원단을 쓸 것인지 등 원단마다 장단점이 있어 제작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숙련된 테일러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스포크 슈트가 완성되기까지

처음 슈트를 맞춘다면 완성되기까지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테일러는 상담을 통해 고객이 평소 어떤 옷을 선호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입을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원단을 제시하고 디자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의 체형을 어떻게 수치화해 패턴으로 담아내는가다. 단순히 사이즈를 알고 고객의 체형을 파악한다고 해서 비스포크 슈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벽한 비스포크 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두 번 이상 피팅이 필요하다. 피팅 후 고객에게 꼭 맞는 패턴이 나오면 2~3주 안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비스포크 슈트 제작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원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루엣의 느낌을 살린

비스포크 슈트를 입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키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남자라면 자신의 체형을 염두에 두고 슈트를 입어야 한다. 슈트 스타일에 따라 실제보다 날씬하거나 뚱뚱하게, 또는 키가 작아 보이거나 커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로 스트라이프는 키가 더 커 보이게 하는 반면, 가로 스트라이프는 몸집을 커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이런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도 유연하고 가벼운 핀스트라이프 슈트가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스포크 슈트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다.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고 테일러의 조언에 따라 선택하면 자신에게 꼭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슈트를 입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유럽 최대 왕가의 품격을 만나다

유럽을 호령하던 왕가의 역사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머리가 아닌 감각으로 만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다.

Editor 이민희 Reference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100배 즐기기〉(한국경제신문)



디에고 벨라스케스, '흰옷 입은 마르가리타 공주', 1656년경



빈 미술사박물관

오스트리아 역사를 한눈에, 빈 미술사박물관

최근 어린이로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많은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 전시가 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이다. 해당 전시에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술관이자 오스트리아 최대 미술사박물관인 빈 미술사박물관의 유명 작품들로 구성했다. 돔 모양의 지붕이 있는 아담하면서도 거대한 석조 건물로 빈 자연사박물관과 마주 보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빈의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팽창하자 중세 때 축조한 성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와 건물을 짓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컬렉션 전체를 한곳에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탄생한 빈 미술사박물관은 1891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박물관 내부는 구스타프 클림

트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고, 중앙 계단과 원형 지붕 그리고 프레스코화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16세기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와 17세기 중엽 레오폴트 빌헬름이 수집한 방대한 소장품을 모체로 세계 미술사 전반에 걸친 진귀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집트 조각, 그리스 공예품, 르네상스와 바로크 회화 작품 외에도 옛 왕궁의 보물·무기·화폐 등도 소장하고 있다. 페테르 루벤스의 대표작 '모피를 걸친 엘레나', 알브레히트 뒤러의 '모든 성인의 축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흰옷 입은 마르가리타 공주', 얀 페르메이르의 '화가와 모델' 등을 비롯해 틴토레토·라파엘·카라바조·렘브란트·반 다이크 등 중세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빈은 매일 수많은 음악회, 오페라, 연극, 전시회, 문학 토론행사가 열리는 예술 도시다. 인구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도시가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오스트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교육과 제도 덕분이 아닐까. 빈 미술사박물관의 청소년 무료 관람 제도와 다양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페테르 루벤스,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1620~1625년경

합스부르크 왕가, 600년 걸작을 만나다

합스부르크 전시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2,200명 정도라고,

진품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더한 전시 기획이 큰 몫을 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사비나 하그 빈 미술사박물관 관장은 “해외에서 열린 합스부르크 전시 중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니, 이번 전시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이 쏠린 또 하나의 이유로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영화 <코르사주>와 넷플릭스 독일 드라마 <황후 엘리자베트>다. 두 작품에서는 오스트리아 마지막 황후인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 이야기를 다뤘다. 그녀는 당대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자 시대의 아이콘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적 명성과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의 그림 역시 소개하고 있어,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한 이들에게 감동의 연장선이 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는 엘리자베트의 일대기뿐 아니라 합스부르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전시 관람을 계획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시의 도입부에서는 ‘더 멀리, 합스부르크가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가문의 배경과 막시밀리안 1세 황제에 대해 살펴본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원래 스위스 북부 지역의 작은 성을 다스리는 백작 가문이었다. 이 작은 가문을 유럽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으로 부상시킨 사람이 바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도 선출된 막시밀리안 1세다. ‘더 멀리’라는 좌우명을 지닌 가문의 후예답게 막시밀리안 1세는 3대에 걸친 결혼 동맹으로 오스트리아, 신성로마제국의 영토, 현재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해당하는 부르군트, 스페인 왕국과 식민지령까지 획득하며 손자 카를 5세에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일까? 전시 역시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화로 시작한다. ‘막시밀리안 1세’ 초상화는 베른하르트 슈트릭겔의 제자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갑옷과 대관식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군주의 위엄을 드러냈다. 그뿐 아니라 중부 유럽을 석권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엄을 체감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루벤스, 벨라스케스, 얀 브뤼헬 1세 등 서양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의 그림과 다양한 공예품 등 96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작품, 눈여겨보자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는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표 수집가가 모은 걸작을 시대별, 지역별로 나눠 각 부스별로 전시한다.

‘흰옷 입은 마르가리타 공주’는 먼 스페인 땅에서 지내고 있는 공주를 보고 싶어 하던 황제 페르디난트 3세를 위해 그린 공주의 초상이다. 당시 유럽 국가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지만, 합스부르크 왕가는 정략결혼을 통해 가문을 번영시켰다. 그림 속 마르가리타 공주 역시 열다섯 살에 외삼촌 레오폴트 1세와 정략결혼을 했다. 공주는 벨라스케스의 대표작 ‘시녀들’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실적인 초상화로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생동감 넘치는 표현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가로 1.9m, 높이 2.7m의 대작으로,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이 소장한 많은 앙투아네트 초상화 가운데 대표적 작품이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여성 화가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르 브룅이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대, 르 브룅은 궁정 화가로 발탁된 데 이어 금녀의 성이던 프랑스 왕립 학술원에 여성 최초로 가입했다. 또한 바로크양식의 대표 주자인 루벤스의 작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Metamorphoses)> 속 일화를 바탕으로 그렸다. 주피터와 머큐리가 정체를 숨기고 어느 마을을 방문했지만 집집마다 문전박대를 당했고, 노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만이 유일하게 신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대접하는 장면이다. 왼쪽에 주피터, 그 옆에는 붉은 옷을 입은 머큐리가 필레몬과 함께 앉아 있다. 그뿐 아니라 17세기 30년전쟁 시기에 플랑드르의 총독을 지낸 레오폴트 빌헬름 대공부터 나폴레옹,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제국의 황혼기를 보여주는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까지 오랫동안 유럽사를 관통하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주요 사건을 예술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관람 정보

전시명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기간 2022년 10월 25일~2023년 3월 1일

전시 내용 16~20세기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작품, 르네상스, 바로크미술 시기 대표 소장품을 통해 오스트리아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회화, 공예, 갑옷, 태피스트리 등 96점의 전시품 소개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르 브룅,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1778년



베른하르트 슈트릭겔 원작 모사, '막시밀리안 1세', 1508년 이전

리폴리클(re.follicle)은

're-energize, rejuvenate' 즉 '다시 젊어 보이게, 활기를 되찾다'는 의미를 함축한 re와 두피 모낭이라는 뜻의 follicle의 합성어. 본래의 힘 있는 두피 에너지를 찾아 헤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헤어 전문 브랜드다.



리폴리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겨울, 두피 노화의 시작 Anti-Aging for Follicle

흔히 안티에이징 케어라고 하면 얼굴 피부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안티에이징 케어의 시작은 두피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특히 차갑고 건조한 겨울에는 두피를 더욱더 신경 써 관리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 탈모와 두피 트러블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두피 케어 방법을 알아보자.

Cooperation 강남세란의원

사람들은 늘어가는 주름에 처지는 피부 등 얼굴 노화 예방에 안간힘을 쓰지만, 두피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두피도 피부다 보니 노화 관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탈모가 진행된 후에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

두피와 얼굴 피부는 연결되어 있어 두피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피부도 함께 처지며, 이마와 눈가 주름 및 목주름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두피도 피부의 일종이기에 노화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두피 문제는 단순히 헤어 관리의 중요성이 아닌, 노화와 탈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계절이 바뀌면 큰 기온 차이로 두피가 건조해져 비듬 및 각종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겨울은 여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습도, 잦은 난방 기기 사용 등으로 두피 노화가 쉽게 진행된다. 피지 분비량이 감소하고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 비듬이나 지루성두피염 등 각종 두피 질환이 생긴다. 그뿐 아니라 탈모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피 관리가 중요하다.

두피 케어의 시작, 샴푸

두피는 다른 부위 피부보다 더 많은 피지샘과 땀샘이 분포해 있으며, 모공 크기가 일반 피부보다 크므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 모발은 두피 속 모낭에서 생겨 세포분열을 통해 위로 올라오며 자라기 때문에 두피 상태는 모발과 모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두피 염증이 모낭을 손상시키면 모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손상된 두피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모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모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큐티클층이 염색, 펌, 고데 등과 잦은 세정으로 손상되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빠지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두피와 푸석한 모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발의 노화가 촉진되기에 겨울철 모발에 더 많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샴푸를 2~3일에 한 번씩 하면 오히려 두피 트러블 발생의 원인이 되고, 탈모를 촉진하게 되므로 매일매일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폴리클의 '안티에이징 헤어 샴푸'는 풍성하고 크림미한 미세 거품으로 자극 없이 두피 모공의 노폐물까지 깨끗이 세정해 두피를 답답하게 하는 기름기는 쏙 빼고, 모근을 타이트하게 케어해 뿌리





볼륨을 하루 종일 유지해준다. 두피에 풍부한 수분을 전달함과 동시에 유효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리폴리클 안티에이징 헤어 샴푸는 두피뿐 아니라 모발 끝까지 윤기와 탄력을 전달해 부드러운 머릿결로 가꾸어준다. 매일 사용하는 만큼 마일드한 저자극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두피 보습과 진정 작용을 하며, 모발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피 세포 재생,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노화란 체내 줄기세포가 감소하고, 줄기세포 자체가 노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체내 모든 조직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줄기세포는 조직 안에 소량 존재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두피도 피부인 만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모낭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모공이 탄력을 잃어간다.

이러한 두피 노화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전문가들은 ‘혈액순환 저하’를 꼽는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모낭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모발 형성이 어려워져 탈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두피 베이스부터 제 기능을 못 하니 모발(헤어) 상태 또한 좋을 리가 없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두

피 안티에이징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리폴리클의 안티에이징 헤어 제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 피부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존재하지만, 노화됨에 따라 수가 줄어들어 주름이 생기고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피부에 좋다는 원료는 대부분 표피층에서 머물기 때문에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아무리 좋은 원료라도 피부(두피)의 표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 그동안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리폴리클 안티에이징 헤어 제품은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HMSC)을 함유해 두피 속까지 흡수가 잘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두피 세포 재생에도 영향을 미쳐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차별화한 핵심 기술로 탄생한 차세대 원료

리폴리클의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은 성체줄기세포 중 만능 세포인 배아줄기세포에 가장 근접한 뿔줄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배양액을 함유한다.

차별화하고 핵심 기술인 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250여 종의 성장인자로, 각종 세포

분열이나 성장 및 분화를 촉진하는 폴리펩타이드의 총칭이다. 리폴리클은 줄기세포배양액 중에서도 원천의 펩타이드 농도가 높은 뿔줄유래줄기세포배양액을 사용했으며, 유전자 재조합으로 균에서 특정 성장인자를 대량생산한 것과는 달리 약 250가지의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단백질, 세포 기질 단백질을 모두 함유해 두피를 속에서부터 건강하게 바꾸는 데 도움을 주며 표피(두피) 또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게 돕는다.

리폴리클 안티에이징 헤어 토닉(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2,500ppm 함유)과 앰플(인체유래줄기세포배양액 10만ppm 함유)은 줄기세포배양액과 두피에 유효한 성분 배합으로 두피를 손상시키는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두피를 보호해 속부터 맑고 힘 있게 깨어나는, 차원이 다른 두피 케어라 할 수 있다. 체내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의 각종 단백질 성분이 두피 손상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풍부한 보습 효과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리폴리클은 두피와 모발 두 가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포를 스스로 찾아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줄기세포 연구 기술과 노후가 집약된 줄기세포배양액 전문 헤어 제품 브랜드로 놀라운 다운에이징 두피 케어를 경험할 수 있다.

리폴리클 뿔줄유래줄기세포배양액 핵심 성장인자 5

VEGF 피부 도포 시 혈관 형성 유도/ 탈모 예방: 모낭에 영양분을 공급해 모발 성장 자극(분석 결과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음)

KGF 피부 각질을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 성장 및 생리 활성 자극

HGF 신생 혈관 생성 촉진 능력/ 피부 재생 가속화/ 노화 방지/ 노후 조직 회복 능력/ 신생 혈관 형성 능력

EGF 상처 치유/ 피부 재생/ 진피 조직의 섬유아세포를 증식해 새살을 채워주는 효과/ 진피 내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혈관을 빠르게 생성

FGF 각질 세포의 분열과 성장 촉진/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엘라스틴 등의 합성을 촉진/ 항노화 기능

더클래스 효성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팝업 스토어 운영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1월 한 달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클럽동 갤러리 인숍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 스토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더클래스 효성만의 독보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럭셔리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을 전시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팝업 스토어 운영 기간 동안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품목을 최대 25% 할인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컬렉션 할인 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행사 기간에 현장에서 차량을 계약하거나 출고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출고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전자 에어로타워(1명)와 계약 고객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트롤리백(5명)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메르세데스-EQ’ 시승 행사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더클래스 효성 우산을 증정한다. 더클래스 효성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남산에 위치한 도심 속 회원제 리조트로, 호텔부터 골프·수영·아이스링크 등 각종 스포츠 시설과 사우나, 키즈 클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더클래스 효성과 도심 속 최고급 휴양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만나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EQ 브랜드 전시 행사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EQ'를 선보이기 위한 다채로운 전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야외 광장에서 열린 '썬데이 스타필드 하남 모빌리티 쇼'에 참여한 것. 썬데이 스타필드 하남 모빌리티 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할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행사로,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를 만나보는 자리였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번 행사에 최근 출시한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메르세데스-EQ의 'The new EQE'와 플래그십 럭셔리 전기 세단 'The new EQS'를 전시한다.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차량 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부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도 제공했다.

202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The new EQE' 팝업 전시 이벤트를 개최했다. 아울렛 East Low Street 광장 입구에서 차량 전시 및 상담을 진행하고, 부스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클래스 효성만의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고객들과 접점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AMG G 63 효성 에디션’ 신규 색상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한정판 '메르세데스-벤츠 AMG G 63 효성 에디션' 신규 색상을 출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창립 19주년을 맞아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3종(논 메탈릭 에디션, 딥 그린 솔리드 논 메탈릭 에디션, 미스틱 브라운 브라이트 에디션)을 출시했다. 여기에 고풍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더하는 트레버틴 베이지 메탈릭 에디션을 추가하며 희소성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이번에 출시하는 트레버틴 베이지 메탈릭 에디션 실내는 '뱅갈 레드'와 '블랙' 컬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내장재로는 최고급 소재의 나파 가죽을 사용해 고속 주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에 카본 및 다이내미카(dinamica)를 적용해 한층 견고하고 품격 있는 메르세데스-AMG G 63만의 감성을 전한다. 그뿐 아니라 22인치 AMG 5 스포크 단조 휠로 역동적 포인트를 살렸다.

진취적이고 독보적인 메르세데스-AMG G 63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내·외장 컬러와 다양한 고객 편의 사항을 결합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슈퍼리어 라인 인테리어와 함께 최신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청계산에서 임직원 참여 ‘플로깅’ 행사 성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그란플러스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더클래스 효성 임직원 약 50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청계산을 등산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자 사회 공헌 활동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란플러스 마운틴 플로깅을 펼쳤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더클래스 효성 임직원은 이날 청계산 등산로 코스 일대 쓰레기를 수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란플러스 마운틴 플로깅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기후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한 '메르세데스-벤츠 그란플러스' 활동의 일환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네트워크 임직원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으로 기획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해 5월 우면산과 청계산 일대에서 진행한 그란플러스 마운틴 플로깅 행사와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을 챙기면서 환경친화적 생활 습관이 일상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클래스 효성 임직원 ‘마음의 메아리’ 구연동화 봉사 활동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해광학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메아리' 구연동화 봉사 활동을 펼쳤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임직원 봉사 활동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는 더클래스 효성 임직원이 해광학교 학생들에게 〈신기한 독〉, 〈난 오줌 안 싸〉, 〈끝까지 들어줘〉, 〈사장이 생겨난 이야기〉 등 네 편의 동화를 들려주며 꿈과 용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

더클래스 효성 임직원들은 동화를 실감 나게 구연하고자 행사를 앞두고 전문 성우에게 사전 교육을 받는 등 봉사 활동을 위한 준비에 열정을 쏟았다. 구연동화 봉사 활동과 함께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선물도 증정했다.

마음의 메아리 임직원 봉사 활동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오케스트라 교육비 지원으로 해광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중단된 구연동화 봉사 활동을 2년 만에 재개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더클래스 효성 이정은6 프로와 후원 협약 연장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이정은6(26·대방건설) 프로와 2023년 말까지 후원 협약을 연장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더클래스 효성 강남대로 전시장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은6 프로와 공식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정은6 프로는 2023년 말까지 더클래스 효성의 로고가 표기된 의류를 입고 경기에 출전하며, 행사에 참여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등 더클래스 효성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클래스 효성은 이정은6 프로에게 공식 의전 차량으로 '메르세데스-벤츠 GLE 450 4MATIC'을 지원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이정은6 프로가 안정적으로 투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식 후원을 이어왔다. 이정은6 프로와 고객 초청 골프 클래스를 여는 등 활발한 골프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KLPGA의 공식 자동차 및 홀인원 파트너로 국내 프로 골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매 시즌 끈기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정은6 프로에 대한 믿음으로 후원 협약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정은6 프로가 매 경기에 집중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 이소영 프로에게 차량 전달식 진행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프로 골퍼 이소영(25·롯데) 프로를 초청해 'The new EQA 250' 차량 전달식을 거행했다.

지난해 11월 23일에 열린 전달식은 더클래스 효성 강남대로 전시장에서 더클래스 효성 이철승 대표와 이소영 프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소영 프로는 KLPGA 투어 2022 시즌 최종전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 7번 홀에서 극적인 홀인원을 터뜨려 행운의 보너스 주 인공이 됐다.

이소영 프로는 더클래스 효성이 후원한 The new EQA 250을 부상으로 받음과 동시에 '한 시즌 홀인원 2회 기록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소영 프로에게 전달한 The new EQA 250은 도심형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차량이다. 높은 전고와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은 물론 '메르세데스-EQ'의 디자인 철학인 '진보적 럭셔리'를 구현했으며, 140kW 출력과 301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한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8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회에서 뜻깊은 홀인원을 기록한 이소영 프로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골프 대회 후원을 통해 프리미엄 자동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고객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는 Mercedes-Benz에서 인증한 최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클래스 효성 신사 서비스센터에서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문의: 02-540-7900



서비스센터 카카오톡 채널



신사 서비스센터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channel/UCvwTbWToVRH3gLqHWgYXpjw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02)2152-3333
■하남 서비스센터 02)3433-1900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031)579-0970 ■동탄 서비스센터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041)620-7070

For Readers

〈THE CLASS〉에 보여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달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HE CLASS〉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THE CLASS〉
매거진 인증샷 찍고
선물도 받으세요!

겨울호 〈THE CLASS〉를
받아 인증샷과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후 편집부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필수 해시태그_#더클래스호성

#theclass #가족스타그램

매거진 인증샷 또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언니, 동생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식구들,
학교 친구들 또는 패밀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단체 사진이라면 OK!
가족, 친구들과 함께한 행복한 한때를
담은 추억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본인의
SNS에 업로드한 후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호 사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공지

2023년 〈THE CLASS〉 불호에 발표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 안내

애독자 편지 및 〈THE CLASS〉
인증샷 링크, 가족사진 보낼 곳

〈THE CLASS〉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독자 선물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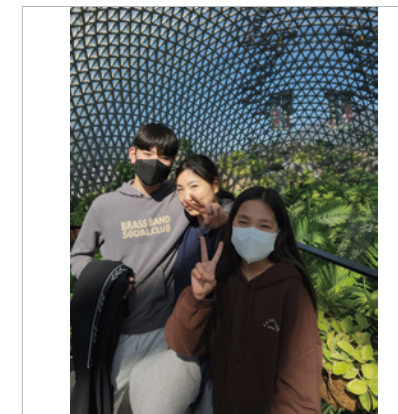
〈THE CLASS〉
독자 선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래 명단에서 이름과 아이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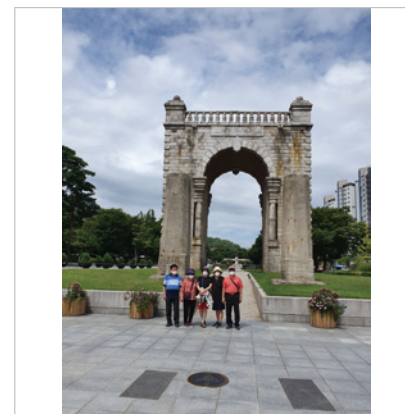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상품을 드립니다. 중복 신청이 많은 경우 원하는 상품으로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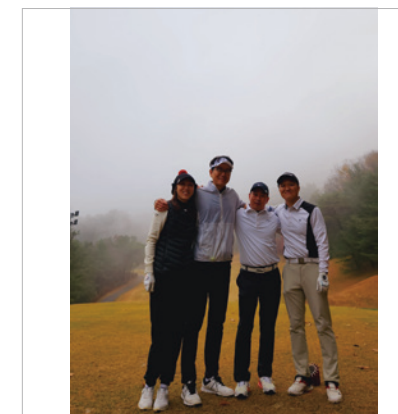
한진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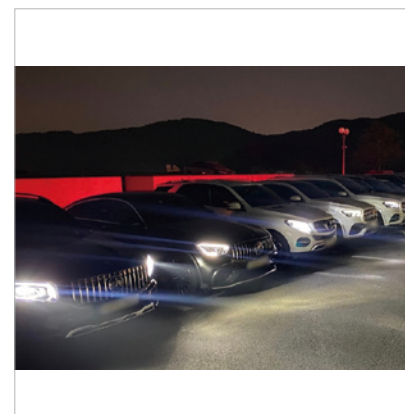
김준호 님



정창재 님



이지영 님



김철진 님



강경희 님

1.

보이스캐디 시계형 거리측정기 A1

김준호 님, 한진수 님

2.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아이스박스

김철진 님, 이지영 님, 정창재 님, 강경희 님,
이정운 님, 장현석 님, 정원용 님, 문근희 님,
심주연 님, 김현중 님

3.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김현주 님, 이소희 님, 남해정 님, 소장원 님,
김준희 님, 신정우 님, 임원준 님, 하준태 님

발송 안내

2023년 2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제품 입고 시기에 따라 발송일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안내

선물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응모한 메일로
주소를 회신해주셔야 발송 가능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회원 정보 기입으로 선물을
받지 못한 경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재발송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THE CLASS〉 매거진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SPECIAL GIFT



1
보이스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EL1
1명



2
리폴리클
샴푸&토닉 세트
3명



3
메르세데스-벤츠
2023 캘린더&다이어리 세트
10명



4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6명



더클래스 효성 안전 운행 위한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1월 31일까지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내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번 서비스 캠페인에서는 배터리,
부동액, 브레이크액 등 겨울철 차량 관리를 위한
주요 부품 최대 25% 할인과 와이퍼 블레이드
부품 30%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고객은 특별 할인을 통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연료 필터 등을 1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로컬 컬렉션을 제외한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컬렉션은 최대 25%,
메르세데스-벤츠 오리지널 타이어는 최대 5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더클래스 효성이 운영하는
전국 13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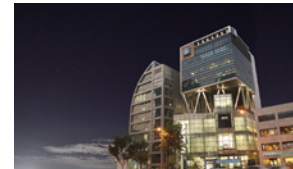
더클래스 효성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

▶ 기간 : 2022년 12월 5일(월)~2023년 1월 31일(화)

▶ 혜택

- ①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 겨울철 주요 부품 최대 25% 할인
 - 와이퍼 블레이드 부품 30% 할인
- ②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에어 필터, 스파크 플러그, 인젝터, 연료 필터 10% 할인
- ③ 로컬 컬렉션을 제외한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최대 25% 할인
- ④ 메르세데스 오리지널 타이어 최대 55% 할인
- ⑤ 익스프레스 서비스 이용 고객
 - 선착순 '메르세데스-벤츠 곰돌이 키링' 증정
 - 추첨을 통해 메르세데스-벤츠 슈트키스(1명), 메르세데스-벤츠 배낭(5명) 제공
- ⑥ 콤팩트 플러스 패키지 신규 가입 후 자기 부담금 지원 서비스 상품 추가 등록 시
 - 1회 최대 50만 원 자기 부담금 지원 프로모션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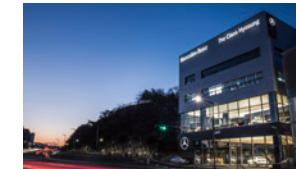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재고 소진 시 혜택이 종료됩니다.
※메르세데스 카드 포인트 적립 및 보험 수리, 타 행사와의 중복 할인 적용은 불가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강남대로 전시장·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전자장 02-575-7500
서비스센터 02-570-1111



메르세데스-벤츠
안양 평촌 전시장·서비스센터
전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 031-689-89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73 |
031-596-2600



메르세데스-벤츠
용인 수지 전시장·서비스센터
전자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7 | 031-5183-92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47 | 031-290-3700



메르세데스-벤츠
동탄 전시장·서비스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영천동 494-13)
전자장 031-880-0200
서비스센터 031-880-0288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서비스센터
전자장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
02-3434-4000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6 |
02-2152-3333



메르세데스-벤츠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2층
1273호
031-8072-8900



메르세데스-벤츠
청주 전시장·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전자장 043-299-9000
서비스센터 043-299-9090



메르세데스-벤츠
천안 전시장·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전자장 041-620-7000
서비스센터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이 최상의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
바로 가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효성벤처타워
www.theclashyosung.com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메르세데스-벤츠
구리 전시장·서비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전자장 031-579-0900
서비스센터 031-579-0970



메르세데스-벤츠
분당 정자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31-786-60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65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9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02-540-7900



죽전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031-786-6100



인중 중고차 죽전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2층 전시장 031-786-6171



인중 중고차 하남
전자장·서비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전자장 02-3433-1999
서비스센터 02-3433-1900



인중 중고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33,
1층 041-555-5070